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세미나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명례방

2020.
1.10.(금)
오후 1시 30분 ~ 6시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문화재단
Korea Arts Management Service
예술경영지원센터

행사명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
일시	2020.1.10(금)
장소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명례방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발행인	김도일
기획 및 진행	심지연(시각사업본부장) 권은용(시각예술기반팀장), 최해인, 안지숙, 조기쁨(시각예술기반팀 주임)
디자인	스튜디오5

본 자료집은 2020년 1월 10일 진행된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 세미나 발표 및 라운드테이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된 글 및 이미지 저작권은 발제자 및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수록된 내용을 이용하시려면 미리 저작권자의 사용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 행사소개

세션1

- 13:30 - 13:35 (‘5)
- 13:35 - 13:50 (‘15)
- 13:50 - 15:00 (‘70)
- 15:00 - 15:10 (‘10)
- 15:10 - 15:50 (‘40)

- 15:50 - 16:00 (‘10)

세션2

- 16:00 - 16:30 (‘30)
- 16:30 - 16:40 (‘10)
- 16:40 - 17:50 (‘70)

- 17:50 - 18:00 (‘10)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시각예술 디지털 아카이빙을 주제로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예술을 중심으로 생성되는 수많은 자료를 기록하고, 기록들을 연결함으로써 단순한 자료의 집합이 아닌 또 다른 정보로서 활용 가능한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바랍니다.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이트 공개 세미나 (13:30 - 16:00)

개회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및 연구지원 사업 소개 및 사이트 시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및 연구지원 연구 소개
 박서보 연구팀(고문위원 기혜경), 육명심 연구팀(책임연구원 이경민), 김순기 연구팀(책임연구원 유진상), 이강소 연구팀(책임연구원 조은정)

휴식

토론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와 활용 방안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변종필(제주현대미술관장), 류지연(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과장), 김주원(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창원(뮤움 대표), 김달진(김달진자료박물관장)

휴식

디지털 아카이빙과 확장성 (16:00 - 18:00)

기조발제. 디지털 아카이빙의 정의와 현황

김정화 ((전)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김창열 연구 책임연구원, 서울공예박물관장)

휴식

좌담: 디지털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들

모더레이터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 1)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노예리(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연구원)
- 무형 예술의 아카이빙과 활용(저작권 문제의 해결, 시소러스 연계 등)
- 2) 영상자료원 : 조소연(큐레이터,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 영상 아카이브의 보존과 활용
- 3) 서울기록원 : 임태원(서울 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 공공기록물의 아카이빙과 활용,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공유 및 업데이트 방안

질의응답 및 폐회



세션 1.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이트 공개 세미나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및 연구지원 사업소개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및 연구지원 연구소개

박서보 연구팀(고문위원 기혜경)

육명심 연구팀(책임연구원 이경민)

김순기 연구팀(책임연구원 유진상)

이강소 연구팀(책임연구원 조은정)

토론 :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와 활용방안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변종필(제주현대미술관장)

류지연(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과장)

김주원(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박창원(뮤움 대표)

김달진(김달진자료박물관장)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은 ‘미술품 감정 및 유통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원로작가의 화업을 연구, 정리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 근현대 미술의 디지털 자료 구축을 통해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5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며, 선정된 작가 및 연구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목적

- 원로작가의 화업 정리 및 연구를 통한 한국 근현대미술의 디지털 자료 구축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한국미술 자료 구축을 통한 작가 해외 프로모션

2. 추진방향

- 한국 근현대미술의 지속적 연구자료 구축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 한국미술의 해외 프로모션 및 국제적 위상 제고

3. 사업기간

- 기간 : 총 11개월
- 세부내용 : 연구진행 8개월 + 자료 수정·보완 및 디지털 자료제작 3개월

선정작가 및 연구팀

구분	작가	연구원 (연구 당시 소속으로 기재함)
‘15년도	박서보	기혜경 외 3인 (북서울시립미술관 운영부장)
	최만린	장준석 외 3인 (한국미술비평연구소 소장)
	이승택	이인범 외 2인 (상명대학교 조형예술학과 교수)
‘16년도	김구림	김한동 외 2인 (경기문화재단 뮤지엄 본부장)
	윤석남	김현주 외 2인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육명심	이경민 외 3인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
	김창열(기획형)	김정화 외 2인 (前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
‘17년도	이건용	김진엽 외 3인 (서울대학교 미학과 교수)
	정상화(기획형)	김현숙 외 3인 (미술사학연구회 회장 /성균관대 겸임교수)
	임충섭(기획형)	이필 외 4인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 교수)
	주재환(기획형)	이영욱 외 4인 (전주대학교 산업디자인과 교수)
‘18년도	박영숙	김홍희 외 5인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심문섭	김복기 외 3인 (경기대학교 부교수)
	윤명로(기획형)	심상용 외 3인(서울대학교 교수)
	이강소(기획형)	조은정 외 2인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 회장, 한남대 교수)
	김순기(기획형)	유진상 외 2인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19년도	성능경	조수진 외 2인 (현대미술포럼 대표)
	안창홍	이준희 외 4인 (사비나미술관 아카이브 책임연구원)
	윤광조	최광진 외 2인 (이미지연구소 대표)
	박대성(기획형)	이은호 외 3인 (홍익대학교 교수)

※ 2015년과 2016년 상반기에는 연구팀이 작가를 선정하여 공모에 지원하였으나, 사업 완성도를 위해 별도 심의를 통해 중요 작가를 선정 후 연구팀을 공모하는 기획형을 16년 하반기부터 추진하였음.

작품과 연보, 전시이력, 참고 문헌 등 작가 관련 자료를 집대성 하고 비평과 작가 인터뷰 영상을 수록함으로써 한 작가의 예술세계를 총체적으로 조망하는 아카이브 제작

자료 유형	자료 내용		비고
텍스트 자료	작가연보	출생, 교육	전시 이력, 작품 외 자료, 작품과 연결해 기존 작가 연보와 달리 보다 풍부하게 작가 삶을 조명함
		전시이력	
		주요작품소장 수상 및 경력	
작가 연구자료/ 참고문헌	전시도록 서문	목록 및 일부 발췌 관련 웹사이트 링크	
	단행본, 논문		
	정기간행물 신문기사 작가의 글		
작가 연구 비평문	연구자의 작가 비평문	200자 원고지 70매 (A4 10장) 분량	
	시기별 작품 해설	작가의 작품세계를 시기별로 구분하여 주요작품 해설	
이미지 자료	전작 목록 및 도판	제목, 규격, 제작연도, 재료, 기법, 소장처 등	작품 정보(영문 작품제목 포함) 및 이미지 보정은 연구자와 함께 확인 요
		기존 슬라이드 디지털화 작업실 및 소장기관 방문 사진촬영 작품 이미지 보정	
		참고자료	
영상 자료	기존 영상자료	방송자료 및 작가관련 동영상 목록	링크 가능한 영상은 URL로 연결(유튜브 등)
	작가 인터뷰	국내 미술자료 및 해외 프로모션을 염두한 인터뷰 구성 풀(20~30분)/ 편집본(7~10분)	영문 번역을 위한 스크립트 제출 필수
	추가영상	작가의 작품세계 관련한 전문가 대담, 집담회 등 ※ 선택 사항	

※ 연구결과물은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KADA)’ 사이트를 통해 공개예정 (~’20.12.)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소개 모습

016. 1. 14. 18:00, 화이트큐브(Whitecube Gallery Mason's yard)
전시 전경 촬영을 통해 16여 점의 '모범시리즈' 작품작 확인
해 참석 주요 인사 확인



한진 화이트큐브 갤러리 외관(좌), 전시전경 촬영 중인 유진상 작가(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박서보 연구팀 발표 모습, 기혜경(부산시립미술관장, 전 박서보연구팀 고문위원)

-전체 연구기간 : 2018년 9월 - 2019년 8월
-참여: 유진상, 조주리, 우혜진, 이수지 (김순기 작가 협력)

- 1차 연구: 2018.9월-12월 문헌 수집, 책임연구원-작가 사전 인터뷰 진행과 기록
- 2차 연구: 2019. 1-2월: 프랑스 소재 작가 스튜디오 방문, 현장 연구, 인터뷰 영상촬영 진행
- 3차 연구: 2019. 3-6월: 목록화 작업 본격 진행, 영상 제작 수정, 작가론 및 주요 작업 설명 초안 작성
- 4차 연구: 2019. 7-8월: 목록화 작업 및 집필 작업 수정보완

현장연구-스튜디오 방문, 작가 인터뷰 채록, 작품실견

3 디지털 아카이빙-목록화 서식 기입 연습과 실행

4 내용연구와 수정보완작업

5 후속연구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김순기 연구팀 발표 모습, 유진상(계원예술대학교 교수, 전 김순기연구팀 책임연구원)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 목적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동시대 미술사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2.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 원로작가 연구목적은 원로작가 연구의 필요성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옥명심 연구팀 발표 모습, 이경민(사진아카이브연구 대표, 전 옥명심연구팀 책임연구원)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 사업> 이강소 연구팀 발표 모습, 조은정(전 한국근현대미술사학회장, 전 이강소연구팀 책임연구원)

심지연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앞에서 저희가 그동안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자료수집 연구지원사업이 어떻게 전개되고 또 변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연구팀별로 작가 자료 수집과 연구, 디지털화를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를 발표해 주셨습니다.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앞으로 서비스할 아카이빙 시스템에 대한 소개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앞에 자리해 주신 패널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2015년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올해로 6년차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의 추진 과정과 그 내용을 공유하는 이 자리에 사업의 시작부터 저희 사업의 설계부터 연구 과정과 내용을 검토하시고, 평가하고 또 시스템의 설계까지 거의 모든 과정을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주신 운영위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김정화 공예박물관 관장님 그리고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 관장님 그리고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관리과장님 그리고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님 그리고 아까 박서보 연구팀 발표해 주신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님께서 운영위원 2기로 또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카이브 전문가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박창원 유움 대표님 그리고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의 김달진 관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시작하면서 사업 소개와 더불어서 저희 아카이빙 사이트를 선보였는데요, 저희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브는 원로작가 선생님을 작품을 중심으로 두고 작품과 연계된 자료들을 연결하는 아카이브로, 컬렉션 매니지먼트 서비스와 아카이빙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설계된 국내 최초의 사례입니다. 간단한 사이트 하나로 보시겠지만 사실 구축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고요, 아직 계획한 것들을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시스템 구축도 그렇지만 사업의 내용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금 현재의 단계까지 오게 됐습니다. 변명처럼 이렇게 사실이 길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운영위원 선생님들께 아카이빙 사이트와 그리고 연구팀 발표 내용에 대한 소회를 먼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

저는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의 미술자료기록지침에 대한 연구도 같이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로서의 무한책임 같은 것을 조금은 가지고 있는데요. 연구하실 때 엑셀을 사용하면서 답답함을 느낄 때마다 비난의 대상으로 아마 저희를 떠올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업은 굉장히 야심에 찬 프로젝트임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전작도록' 혹은 '아카이브' 이런 단어를 분류 없이 쓰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들어서 피카소 연구를 한 내력을 살펴보신다면 아마 1920~1930년대에서부터 굉장히 전문적으로 진행되었던 모든 연구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그것들이 정리되어 가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같이 논의도 되었고 어떻게 그 대상들을 분류하고 정리하는가, 하는 기반적인 논의가 훨씬 더 먼저 있었던 상황에서 그것이 기술 기반으로 어떻게 옮겨가는가, 라고 하는 논의들을 순차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갑자기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세상 속에서 원천에 대한 것에서 부터 시작해서 한꺼번에 전부 해결 해야 하는 거의 어벤져스 같은 일을 함께 시작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다보니 연구진들이 "계속해서 시행착오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거기서 던지는 이슈 이슈 하나가 전부 처음에 논의되어야 하는 것과 맨 끝단에 논의되어야 할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앞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앞으로 이 앞에 해왔던 것들을 정리해 나가는 단계에서 그것들을 우리가 "시행착오", 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이슈들이 사실은 어느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바라보고 차분히 정리해서, 기술 기반 플랫폼을 바탕으로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하나씩 정리 해나가야 할 순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김창열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저의 팀이 연구를 할 적에는 지금 많은 선생님들이 하셨던 것처럼 전작도록에 가까운 자료를 목표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창열 선생님의 모든 전시회에 등장한 대표 할 수 있는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900점이기는 했는데요, 디지털 자료집을 구축하고자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다시 말해 확인할 수 있는 작품들을 대상으로 그 작품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가는 자료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근접시켜서 모든 자료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순환적으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작업에 중점을 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자료를 링크 시킬 수 있는 mock-up을 만들고 많은 자료들을 디지털

정보구조로 정리하는 것에 오히려 더 관점을 쏟았습니다. 사실 저희 팀에서는 정보 구조 아키텍처를 만들고 웹상에서 순환적 정보 서비스가 가능한 mock-up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고 작동되는가, 그럼으로써 작가 연구에 새로운 가치를 부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조금 더 관점을 두고 작업 해보기도 했습니다. 각 연구팀이 주력하는 관점, 이슈들이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연구팀의 연구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이 어찌면 우리나라 작가 연구의 중요한 하나의 맥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

이 사업의 운영위원으로 2015~2017년까지, 연도로는 18년 상반기까지 참여했는데요. 오늘 네 팀의 연구 성과 발표를 들으면서 팀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오늘 함께하지 않은 연구팀들까지 왔다면 아마 그 어려운 연구 과정만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뻔했다는 생각마저 들면서, 그만큼 국내에 활동하고 있는 수많은 작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 많았다는 것에 대한 어떤 반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연구를 한 번의 아카이빙 사업으로는 결코 구축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공모를 심사하고, 연구팀 및 작가 선정 등 운영위원으로서 많은 역할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공모 심사 자체는 운영위원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인식하에 별도의 심사가 되었던 부분임을 밝혀둡니다. 운영위원으로서의 인상적인 사례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각 연구팀이 가지고 있는 연구의 어려움은 많이 있었지만, 오늘 발표에서 여러분이 들으셨듯이 여러 어려움 속에서 이루어낸 성과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공감하셨을 것입니다. 연구 과정에서 가장 염려했고, 논의가 많았던 부분이 작품을 어디까지 기록화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를 하겠지만 작가 마다, 성향에 따라서 너무 다르다보니까 특정 매체를 다루는 것이나 작가의 활동 영역을 기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시작할 때는 다들 의욕과 성과에 대한 목표가 뚜렷했는데 연구 과정에서 그 뚜렷함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뢰에서 시작했다가 불신의 단계가 되는 그런 연구팀도 있었으니까요. 작가와 강한 친밀도에서 시작했지만, 서로의 입장차가 있었다는 거죠. 여기서 불신은 작가의 입장에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조금 더 작가로서 위상을 세워 작가적 위치를 확고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반면에 연구진들은 조금 더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누가 보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비롯한 간극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그러한 간극 차이를 최대한 좁히려고 노력했던 연구팀과 작가의 노력이 오늘의 결과물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 가장 값진 성과라고 느끼고 미력하나마 이 사업의 운영위원으로 참여했던 것에 대해서 참으로 보람을 느낍니다.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자료관리과장

저는 운영위원에 참가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국립현대미술관에 있다 보니까 이런 작업들의 수혜자이면서 적용 및 협업 가능한 기관의 대표성을 띄고 계속 잠재적인 역할들을 염두에 두면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희 미술관에 8,500점 되는 소장품의 정보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기술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하면서 참여하고 다른 분들의 작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카이빙 작업들이 한편으로는 미술계 그리고 작품, 어떤 작가 해석에 있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확보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연구는 개인과 기록, 개인의 기억이 공공의 자산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검증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고, 검증을 통해 연구 결과물이 공공의 자산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사실 가장 큰 숙제이기도 합니다.

저희 미술관에서 작고작가 전작도록 발간을 위한 연구지원 사업 결과물을 기증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서비스를 못하고 있습니다. 원로작가의 경우에는 오늘 발표를 통해서도 느꼈지만, 살아계시기에 저작권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가 해결되고 또 수정 가능한 상황에 있지만, 작고작가의 경우에는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서 김정화 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착오라기보다도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아카이빙의 연습과정, 수렴과정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이 2014년부터 기초설계 등의 준비를 통해 2015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업의 첫 시작부터 3년여 동안 운영위원으로 참여한 사람으로서 2020년 현재 원로예술인 스무 분의 아카이빙이 개별 프로젝트로서 완료 혹은 진행되었다고 하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세미나 제목이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 인 것은 스무 분 작가 개개인을 기록하는 것이 한 개인의 기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지역으로써의 한국과 세계, 작가와 연구자, 그리고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중요한 첫 자리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미덕을 펼치는 첫 시작의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라면 세미나에 대한 소회가 될까요? 이상입니다.

심지연

뮤움은 저희보다 먼저 작가, 작품 전시 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해오고 계신데요, 뮤움도 초창기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미리 사전에 저희 시스템도 들여다 보셨는데요, 대표님께 전체적인 저희 아카이빙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창원 뮤움 대표

반갑습니다. 뮤움 닷컴은 2009년에 서비스가 시작되어 현재 11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경험했고, 미리 말씀들을 하셨듯이 관리자페이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보여지는 페이지보다 관리자 페이지가 몇 십배 정보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취합된 엑셀데이터로 실제 사이트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기에 저는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우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하는 정보는 윈도우즈 기반의 PC뿐만 아니라 애플 OS 기반의 맥(Mac)에서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익스플로러,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를 통해 동일한 화면으로 구현이 되게 고려해야 합니다. 확인해보면 OS 구분 없이 오늘 시현했던 사이트는 크롬에만 최적화가 되어있는 듯 합니다. 특히 익스플로러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고 있어요. 오류가 난다는 것은 화면 자체가 안 나타나기도 하고, 레이아웃 자체가 달라지기도 하고 아마 그런 부분은 차츰 시간을 가지고 개선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공공기관에서는 특히 웹 접근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하는데 장애인이라든가, 고령자들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합니다. 조금 더 시스템적인 이야기는 더 진행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연

김달진 관장님께도 리뷰를 부탁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고 오랜 기간 동안 기다리시고 문의도 많이 주셨습니다. 오늘 간략하게 내용을 보셨는데요, 전반적인 관장님의 리뷰를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안녕하세요. 김달진입니다. 저는 해오던 일 자체가 아카이빙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에 처음 출발에서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언제 볼 수 있을까를 항상 궁금하게 생각했고, 문의도 한 적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작가 선정 공모에 심사라도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토론에 저한테 6개 항목의 질문서가 왔는데요.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 봤는데, 지금처럼 내용이 많이 들어있지 않았지만 메뉴나 콘텐츠 분류 이런 것은 무난하고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연구자들 스스로가 검토하고 정리된 이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미술품 감정 기반과 해외 프로모션 2개의

축으로 같이 묶어서 작가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선정된 작가의 면모를 보면 생존작가 중에 제일 많은 분은 김창열 작가가 91세, 나이가 적은 사람은 안창홍 작가가 67세인데 두 가지 조건을 다 충족시키는 작가가 20명이 해당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했을 때는 약간 의문이 들었어요. 선정된 작가 중에서 정말 이 작가가 미술품 감정을 할 작품 기반이 되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어떤 작가는 이 작가가 해외에 나갔을 때 한국 작가로서 어떤 대표 아니면 어떤 한국적인 무언가를 담아낼 수 있을까에서 작가 선정을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근본적인 문제와 관련된 의문이 있었어요. 선정된 작가는 상당히 영광된 일이죠. 큐레이터들도 일을 해보면 알겠지만 그 주제에 맞는 사람을 선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어떤 보완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도 이것을 공모와 기획형 2개로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표준화된 표기법 기록지침에 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저도 자료를 정리하는 아키비스트 입장에서 항상 부딪치는 것이 분류에 대한 것입니다. 저희는 구별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니까 자꾸 분류를 하는데 전통적인 방식으로 현대미술을 어떤 장르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오류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어려워져 작가한테 미술의 어느 장르냐고 물으면, “나도 모른다”라고 하세요. 우리는 기록하고, 분류하고, 정리해야 되는 입장인니까 이것을 자꾸 질문을 던지고 고심하게 되는데, 이런 분류와 구별이 굉장히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연구센터에서 ‘2013년 기록 지침’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더 보강된 것이 나왔는지는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소장품 기록지침 2017년’이 나왔고요. 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립현대미술관의 AMS(아카이브매니지먼트시스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 차원에서 미술관에 두 차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를 요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민간사업 침해방지, 소프트웨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이라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AMS 자체는 국가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이런 것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풀어줘야 그것이 더 나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미술관이나 기관마다 서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 호환도 안되고 통합, 상호검색이 불가능하다면 더 큰 시행착오와 예산 낭비가 될 것입니다. 예전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코라스(KOLAS 공공도서관표준자료관리시스템)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전국의 도서관에 공유화 시켜서 없는 것을 서로 네트워크화 하고 검색해서 보게 해주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을 만들었고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위해 한국박물관협회를 통해 사람까지 지원해주고 e뮤지엄에서 검색이 되는데 같은 국가기관임에도 한쪽 국가기관에서는 안된다는 상반된 정책은 아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남았는데요. 만드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완성해서 운영해 가는 것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김대중 정권 시절에 정보화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한국미술작가 500인의 공간을 만들었어요. 지금 편하게 이야기하면 작가들 500명에 대한 미니 홈페이지였었죠. 그런데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트를 관리하는 전문 인력이 없어요.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작가 스스로도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 관리가 되는 작가가 있는 반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귀찮고 소통이 안되니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졌죠.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위원회에서도 골치 아팠던 그런 일이기도 했었죠. 그리고 지나간 일이긴 한데 2008년 김달진미술연구소에 이일에 대한 업데이트를 해달라, 그쪽의 요청에 의해서 MOU까지 맺어서 신문에 보도까지 되었는데 그 후에 전혀 그쪽에서 액션이 없고, 그것에 대한 일이 줄어들고, 관심 바깥으로 밀려나니까 없었던 일이 됐고요. 어제 이 사이트(DA Arts)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431명에 대한 것이 남아 있는데 처음하고 형식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이트가 만들어졌을 때 어떻게 지속적으로 가느냐가 큰 과제이고요. 또 디지털 아카이브 활용과 연계는 이것은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지목한 국립현대미술관, 아시아문화전당,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이런 기관과 연계해서 그쪽에서 풀어나가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만들었지만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몇 년 전 진위, 감정 문제 때문에 박수근, 이중섭 카탈로그 레조네 만들기 시작할 때, 한편에서 국가가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런 비판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을 아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문학 사이트는 큰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심지연

감사합니다, 관장님. 사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제가 여섯 가지 질문을 미리 드렸는데, 그 답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시급한 부분들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이것이 디지털 아카이브니까 사실 자료의 확장성과 연계 그리고 지속적인 업데이트 등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문제인데요. 저희 지원사업은 11개월이라는 한정된 시간과 예산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 종료 이후에 새롭게 작품을 제작하시는 경우도 있고, 전시도 있고 또 옥션이나 아트페어, 갤러리를 통해서 거래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또 새롭게 발견되는 자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15년에 진행된 연구부터 해서 저희가 한 번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 저희가 업데이트에 대한 예산을 일부 조금 마련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리적인 업데이트의 주기와 범위 그리고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지켜보시고 계속 같이 해온 입장에서 어떤 범위와 방식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야 될지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종필

업데이트는 너무 큰 과제인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저는 오늘 시작과 동시에 첫 번째 발표하신 박서보 팀의 기혜경 관장이 언급하셨던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이 사업의 성격과 의미를 대변해준 말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운영위원을 시작했을 때부터 과연 이게 끝낼 수 있는 사업인가. 이것은 끝낼 수 없는 사업이고, 끝까지 지속해야 할 사업이라는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미 500인 사이트가 정상적으로 활용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측면에서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사업의 핵심은 지속성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이 모였습니다. 지속성은 결국 업데이트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에 관심을 기울여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연구를 책임졌던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당해 연도에 사업으로 끝내지 못한 채 지속했다는 식의 놀라움의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 같은 시간투자는 당연하니까요. 시간투자를 마치 우리 스스로 굉장히 신기하고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 라고 의심을 하는 순간 이 사업은 멈출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끊임없이 작가가 작업을 하고, 많은 작가가 이러한 연구대상이 되고자 하고, 끊임없이 나와야 할 수많은 작가가 있는 가운데에서 이 같은 사업이 또 어느 지점에서 멈춘다면 그것이 결국 우리 현대미술, 우리 한국미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업데이트는 계속되어야 하는데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제가 이곳에 오기 전 국립현대미술관사이트에 접속해서 검색창에 박서보를 입력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장품 36건 그리고 관련한 아카이브가 247건 검색되더군요. 이에 견주어 조금 전에 발표했던 박서보 팀의 자료는 무려 7,000건입니다. 단순비교만으로도 이번 사업이 얼마나 많은 부분을 담고 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연구를 이제 하나의 사이트로 운영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기술적인 뒷받침과 시스템이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라 어찌보면 5년이라는 시간으로는 부족했다고 여겨집니다. 업데이트의 방안을 말씀하셨지만, 어쩌면 이 부분은 이제 시작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오늘 시연에서 지난 연구성과의 10분의 1도 채 보여주지 못한 현실이 충분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사업의 완성도는 부족합니다. 그런데도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여기까지 사업을 이끌어 온 것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야기할 부분은 잘못을 들춰내기보다 잘하는 현재 사업을 어떻게 하면 더 지속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원활한 온라인 서비스와 업데이트에 관한 생산적 토의와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류지연

업데이트와 관련해서 기관에 있으면서 가장 실질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를 말씀드리면 기관의 의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지 모르겠지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원로작가 구술채록 사업을 했습니다. 그 사이트가 지금 얼마나 활용되는지, 얼마나 관리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사이트를 활용하는 사람들, 활용 할 잠재적인 사용자들은 많으나 이를(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유지 및 업데이트, 서버 관리는 어렵습니다. 이는 기관의 의지, 인력, 예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때문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는 기관 차원에서 원로작가 연구 사업만큼은 향후에라도 지속적으로 끌고 간다는 의지를 조금 확고하게 보여주셔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하나는 연구진들의 지속적인 노력이며, 이를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얼마나 뒷받침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연구진들은 아마도 이미 연구를 시작했기에, 계속 연구했던 작가들을 끊임없이 연구하는데요. 저희 미술관도 똑같은 입장이 되기도 합니다. 작가분들은 미술관에 아는 큐레이터, 아키비스트에게 연락해서 그 자료 어디에 쥐라 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아마 이 연구를 진행했던 모든 연구진들에게 작가 선생님들이 동일한 연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득이하게 연구진들은 굉장히 심도 깊은 자료들을 계속 받게 될 텐데요, 이를 이 사이트에 어떻게 담아내느냐는 앞으로도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서버관리입니다. 서버관리 예산이라도 지속적으로 확보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원

2000년대 초반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을 프로젝트로 띄우면서 ‘아카이브’에 대한 국내 예술계의 관심이 뜨거워졌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이 생산한 구술 영상, 녹음, 녹취자료와 사료적 가치가 높은 관련 예술자료들의 아카이빙은 국립예술자료원이 하고 있는데, 유사한 아카이브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이외에도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아카이브,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아카이브, 아시아문화전당 아카이브 등등의 국공립기관들이 있죠.

저는 사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시각예술인 대상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 아카이빙>의 지속 가능성에 관한 문제는, 디지털 자료의 업데이트 이전에 산발적인 유사 아카이브들의 관리 운영의 일원화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술경영지원센터의 경우 아카이브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생산해 낸 디지털 자료들의 관리 및 업데이트가 가능한 아카이브 기관과의 연계만이 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연구자분들의 발표 내용 중 작가기록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한계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작가의 기억과 기록에 의존하여 역사적으로 망실된 예술사의 원풍경을 복원해내는 국립예술자료원의 <원로예술인 구술채록사업>의 성격입니다. 이 사업은 그 사업과는 명확히 다른 방향성을 갖고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미술품감정 및 유통기반 사업’의 하나로 시작되었기에 역사 다시쓰기, 혹은 역사의 복원이라는 문제를 중심에 둔 <구술채록 사업>과는 별개의 성격이며, 개별적인 작가의 작품들 개개의 탄생과 이력에 초점을 둔 전혀 다른 성격의 사업입니다. 사업 성격에 대한 의견은 사업의 준비과정 자문이나 첫 회 운영위원으로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출했던 부분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 처음 공개된 사이트 역시 이 사업의 애초 성격과 관련하여 연구자의 연구 부분이 보다 적극적으로 노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업설계 초기에 실제적으로 요구했던 사항으로 <구술채록사업>과 활용매체 자체가 다르게 때문에 디지털 자료의 열린 특성을 강조하여 한국미술의 국제적 위상 확보를 견인하는 방식으로 유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한국미술이 세계화되지 못한 많은 원인 가운데에는 작가에 대한 본격적인 국제적 소개의 미흡함도 있지만, 연구자나 큐레이터에 대한 국제무대への 소개도 역시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원로작가와 그를 연구하는 연구자를 노출하는 것이 이 사업의 방향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점이 보완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김정화

업데이트라는 우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같은 시스템 안에서 이제 다 연구를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구축한 결과를 공개하고 보고 있는데 다른 연구진들이 보다보니 작가에 대한 자료가 더 생기기도 하고 작가 선생님이 작품을 새로 하기도 하니까 이 자료들을 더 올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업데이트 1번이겠죠. 그것은 있는 시스템에 추가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또 모르는 두 번째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와는 달라져야 하는 업데이트예요. 아르코에서 만든 500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외관에만 치중한 그냥 우리가 흔히 부르는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사실 홈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예쁘게 외관을 만드는 일이 아니었어야 하는데, 그 속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가하는 관점보다는 그냥 외관이 어떻게 보이거나 중점을 두었던 것이라 간단하게 말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에 그때는 그렇게 해도 되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업데이트는 사실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은 자라는 생물하고 똑같습니다. 디지털은 오늘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했지만 내일이면 다른 모습으로 변모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휴대폰의 경우, 내년쯤 되면 우리 다 폴더폰을 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리고 후년쯤 되면 휘어지는 디스플레이 놓고 이야기하고 있을지 모르고, 여기 안 계셔도 될지 몰라요. 다 우리 각자 들어와서 다 유비쿼터스로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CES에서 지금 그런 것 하고 있잖아요. 두 번째 업데이트는 서버의 관리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애써 정리한 인포메이션 체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옛날에 아르코에서 500인 홈페이지를 만들 때에는 정보의 '연계'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럼 두 번째 업데이트가 더 심각할 것인데 그것을 피하고 살면 우리는 원시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같이 가야만 하는 세상을 슬프지만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나이가 많이 든 세대이기 때문에 슬프다고 이야기 하는데 앞으로 올 젊은 세대는 그것이 당연할 것일 거예요. 자전거 대신 전동킥보드 타고 돌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이예요. 세 번째 업데이트는 지금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군데에서 다 디지털로 아카이빙을 하는데 연계시켜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셨는데 이는 조금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산재한 많은 데이터베이스, 혹은 아카이빙 시스템을 통합하여 하나가 되도록 업데이트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이것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도록 간단히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없다고 봐야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시맨틱 온톨로지(semantic ontology)를 연구, 개발해서 또 다른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것들이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뇌 구조를 만드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해야만 대한민국의 미술 정보는 체계가 설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하느냐, 지금 아무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할 것이냐, 그것은 누군가는 나서서 예술경영지원센터 같은, 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이 사업을 3.1 운동 이후로 제일 큰 사업이라고, 제일 잘 하고 있는 독립운동에 버금가는 운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는데 기관이 나서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럽의 유로피아나 사업과 버금가는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쉽게 업데이트라고 말을 하지만 첫 번째 업데이트, 새로운 자료가 생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열심히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매일 정보를 넣으면 됩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계속해서 IT의 발전에 촉각을 세우고 우리는 어떻게 가야지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와 개발을 하며 융복합으로 가야 됩니다. 세 번째 업데이트 어떻게 하느냐, 이것은 이제부터 나라가 정신 차리고 나가서 새로운 연구로 팀을 만들어서 아주 심각한 연구를 해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단어로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 하다 보면 우리가 이도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그 이슈에 따라서 우리가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쳐다보면서 찾아나가야 된다고 저는 업데이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주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오해가 있을까봐 하나만 첨언을 하자면 아카이빙 장소의 일원화라고 하는 것은 국공립 기관들 간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고 그리고 국립현대미술관이나 국립예술자료원,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원로작가'라는 같은 소스, 같은 자료를 대상으로 자료를 생산, 수집, 관리하고 있으니 이를 일원화 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류이나 김달진미술연구소에까지 자료를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창원

활용 및 연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업데이트보다는 다양한 아카이브 기관들의 연계방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현재 많은 공공기관에서 API를 공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우편번호, 교통정보 등이 있고 민간에서는 네이버 지도 서비스라든가, 구글 지도 등 공개된 데이터를 API를 통해서 다 가져오거든요. 생각을 해보면 미술기관들도 많이 있고 아카이브도

구축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 달라서 표준을 잡기가 힘든데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한 기관이 기준이 되어서 API에 대한 표준을 정하고, 문서를 만들고 그 문서를 각각의 기관에서 그 문서에 맞춰서 API를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는 그 문서 한 장을 통해서 다 공유할 수 있고 그것은 사설기관에서도 문서만 보면 그 데이터는 다 가져다 쓸 수 있거든요. 각 사이트의 정보가 다양하지만 표준화된 데이터는 다 갖다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각각의 기관에서 각각의 API를 만드는 것입니다, 각 기관마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을 못 맞추니 그냥 각각 만들고, 대신 각각 만든 API를 서로 공유하자, 6개 기관이 공유하게 되면 6개 API 파일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주기적으로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 정보가 바뀌는 것이죠. 그리고 바뀐 정보를 다시 API에 추가하는 것이죠. 그 추가된 데이터를 다시 공유하는 것이고. 이것은 기관마다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손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한 기관에서 API 표준 문서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향후에 아카이브 기관 뿐 아니라 다른 많은 곳에서 가져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미술 데이터는 복잡하고 시간은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자페이지도 확인해 봤는데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작품이나 자료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사이트에서 볼 때는 서너 개 밖에 안 나오지만, 하나의 작품에 연결된 정보가 한 30~40개 넘는 필드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검색을 통해 정보를 찾을 때 맞춤형으로 보여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등록된 데이터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있어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문서제목에는 특수문자도 많기 때문에 검색을 했을 때 찾기도 어렵고, 아마 관리자 페이지를 보신 분들만 아시겠는데 참고문헌, 전시기록 등의 자료들이 한 리스트에 모든 작가정보가 다 섞여 있어요. 그런데 작품도 아까 보셨듯이 한 작가 당 1,000점도 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 찾아야? 작품도 공통된 주제의 제목이 있잖아요.'무제'라든가. 그러면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가별로 구분해야 하고, 검색이 정확해야지만 정보 업데이트를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반영된다면 몇 년 안에 표준적인 서비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달진

좋은 이야기로 맺어지는 점점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이 나온 것 같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 요약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것이 몇 몇 작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정말 우리 미술계 전체가 안고 있는 어떤 아카이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역에서는 서울에서 우리 지역까지 커버해줄까 하지만 그것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새는 도립 미술관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도 질문도 많이 받는데요. 지역은 지역 중심의 어떤 도립미술관에서 자체 지역의 미술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조금 더 심도 있게 챙겨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늦게 미술관이 생겨서 자료의 수집이 어려운데 찾고 보면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그쪽에 그래도 열심히 일차적인 자료를 많이 모아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 일차적인 아날로그 자료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론적인 것은 국립예술자료원이 2010년에 생겼다가 4년 만에 없어졌는데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해나갈 국가적인 기관이 필요합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이 사업을 시작했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이런 것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미나는 내년 사업이지만 6년차를 맞이하여서야 겨우 추진 과정과 내용을 공유하는 자리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심지연

제가 사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부분은, 저희가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이라는 사업을 시작하면서 미술 자료들을 정리하고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것들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굉장히 많은 기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진행이 되어 왔는데요. 아까 앞에서 많은 연구팀에서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기록지침이나 여러 가지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희나 연구팀만의 노력으로는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미술관에서도 많이 오셨고, 미술 자료를 다루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으니 함께 지침도 만들고, 가이드도 만들고 이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만들어 가기를 요청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나누고 싶은 말씀을

많이 못 나눴는데요. 제가 선생님들께 필요한 말씀들은 또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 작가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렸는데 총 20분의 자료가 올라가게 되면 이 사이트는 사실 한 작가에 대한 연구자료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 미술사라는 전체적인 맥락에 대한 자료들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연내에 영문 사이트를 오픈함으로써 한국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하고 또 프로모션 할 수 있는 자료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출발이고 시작이니까 많이 들여다보시고 또 발전적인 의견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패널 선생님들 그리고 발표해 주신 연구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디지털 아카이빙, 연구와 활용 방안> 라운드 테이블 진행 모습(좌로부터 김달진(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장), 박창원(유움대표), 김주원(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류지연(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자료관리과장), 변종필(제주현대미술관장),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심지연(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기혜경 부산시립미술관장, 원로작가 운영위원, 박서보 연구팀 고문위원
 한국 근현대미술사로 석사와 박사를 마쳤다.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로 《20세기 중남미 미술》, 《신호탄》, 《메이드 인 팝랜드: 한중일 삼국의 팝아트》, 《올해의 작가상 2012》, 《광복 70주년 기념: 소란스러운, 뜨거운, 넘치는》 등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이미지 시대의 매체 vs 미디어』(2018)가 있으며, 동시대 예술의 변화 양상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찰, 한국 동시대 미술의 다양한 양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예술경영지원센터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박서보 연구팀 고문위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7년부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달진 김달진미술자료 박물관장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화예술학과를 졸업했으며 1981년부터 1996년까지 국립현대미술관 자료실에서 근무했다. 2018 한국박물관우수활동상(2019, 출판부분 수상), 홍진기창조상(2016) 등을 수상했다. 주요 저서로는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공저, 2015), 『미술전시 기획자들의 12가지 이야기』(공저, 2005), 등이 있다. 현재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한국아트아카이브협회장, 서울아트가이드 편집인을 맡고 있으며 한국의국어대학교 기록정보학과 강사로도 활동 중이다.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 원로작가 운영위원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후 파리 3대학과 4대학에서 불문학과 조형미술이론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0년에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전문 연구소인 뮤지엄코리아를 창립해 뮤지엄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2003~2007), KAIST 문화기술대학원(2007~2016), 고려대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 교수(2017~2019)를 역임했다. 첨단 정보기술과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미술과 뮤지엄, 전시공학,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기록자료지침,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김창열 연구팀 책임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8년부터 원로작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김주원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대전시립미술관 학예연구실장으로 2009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수석큐레이터, (재)유영국미술문화재단, 대구미술관 학예연구실장을 거치며 다수의 전시를 기획하였고 일본 기타큐슈 현대미술센터 초청 펠로우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현대예술사대계 V』(시공사, 2005/공저)가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는, 「1970년대 한국 단색화 논의 재고」(2002), 「1960년대 한국미술에서 구상추상논쟁과 리얼리티의 문제」(2011), 「한국추상미술의 아방가르드적 성격과 '신사실파」(2017) 등이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로작가 운영위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류지연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관리과장, 원로작가 운영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 관리과장으로 1996년부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기획 및 조사·연구를 담당했다. 주요 전시로는 《조르조 모란디》, 《바우하우스의 무대실험》, 《명화를 만나다 : 한국근현대회화 100선전》, 《광복기념 한국근대미술 1945-1950전》, 과천관 개관 기념 《달은 차고 이지러지다-작품 이후》, 《2017 덕수궁 야외프로젝트》 등이 있다. 2018년부터 원로작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박창원 유음 대표
 대한민국 작가 DB 사이트 유음 대표이다. 홍익대학교 광고홍보대학원 멀티미디어커뮤니케이션 전공했으며 안철수연구소 자무스 과장, 영화 전문 웹사이트 맥스무비 팀장, 포톤연구소 멀티미디어 제작팀에서 근무했다. 유음은 작가인명, 전시자료 DB로 전시, 작품, 작가, 기획자 등 정보가 연동되어있다. 작가가름만 검색해도 작가 프로필 뿐만 아니라 작품, 전시정보까지 한번에 검색이 가능하다.

변종필 제주현대미술관장
 미술평론가이자 제주현대미술관장이다. 경희대학교 미술교육과와 동대학원 미술(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사학과(미술사전공)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2008년 미술평론가협회 미술평론공모와 2009년 조선일보 신춘문에 미술평론부문에 당선된 이후 미술평론가로 활동을 시작했다. 경희대학교 겸임교수, 홍익대학교, 인천대학교, 삼육대학교 등에서 강의했으며 양주시립장육진미술관장과 앤씨(ANCI) 연구소 부소장, 한국박물관협회 책임연구원 및 위촉위원 등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장육진 단순함의 아름다움』, 『아트 비하인드』가 있으며 공저로는 『단색화 미학을 말하다』, 『손상기의 삶과 예술』, 『한국현대미술가 100인』 등이 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원로작가 운영위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유진상 계원예술대학교 교수, 김순기 연구팀 책임연구원
 계원예술대학교 융합예술과 교수이며 전시기획과 비평 활동을 겸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프랑스국립고등장식미술학교를 졸업했으며 파리 1대학 조형예술학과, 파리 8대학 철학과에서 D.E.A(연구심화학위과정)를 졸업했다. 주요 전시 기획으로는 2013년 대구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우주보다 더 좋은 Better than Universe》 전시감독, 2012년 제 7회 서울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너에게 주문을 건다 Spell on you》 총감독,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품전 《추상하라! Abstract it!》, 2008년 제 1회 아시아프(ASYAAF) 총감독, 2000년 제 2회 공장미술제 《눈 먼 사랑》 등이 있다.

2018년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김순기 연구팀 책임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이경민 사진아카이브연구소 대표, 육명식 연구팀 책임연구원
 중앙대학교에서 『한국 근대 사진사 연구』로 박사 학위(영상예술학 박사)를 받았으며, 사진아카이브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사진 평론과 전시 및 출판 기획 등의 일을 해 왔으며, 한국 사진사 연구와 근대현 사진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획한 주요 전시로는 《벽의 예찬, 근대인 정해창을 말하다》(일민미술관, 2007), 《임응식-기록의 예술, 예술의 기록》(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미술관, 2011),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대구미술관, 2018) 등이 있으며, 《서울사진축제》감독(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2012-2014)과 기획자(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 2019)로 활동했다. 저서로는 「기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2005), 『경성, 사진에 박히다』(2008), 『제국의 렌즈』(2010), 『카메라당과 예술사진 시대』(2010), 『경성, 카메라 산책』(2012), 『박정희 시대의 사진표상과 기억의 소환』(2017) 등이 있으며, 2017년부터는 근현대사진아카이브 자료집 『다쉬브』(통권 5호)를 발간해오고 있다.

조은정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이강소 연구팀 책임연구원
 고려대학교 초빙교수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술사학자이자 미술평론가, 전시기획자로 활동하며 구상조각평론상, 석남미술이론상을 수상하였다. 《전통에 묻다》, 《세종대왕과 음악》, 《한국의 초상미술》 등 여러 전시를 기획하였으며, 『동상:한국 근현대 인체조각의 존재방식』, 『고희동,격변기 근대화단, 한 미술가의 초상』 등 다수의 저서와 『한국의 미를 다시 읽는다』, 『비평으로 본 한국미술』 등 많은 공저가 있다. 2018년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이강소 연구팀 책임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세션 2. 디지털 아카이빙과 확장성

기조발제. 디지털 아카이빙의 정의와 현황

김정화 ((전)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김창열 연구 책임연구원, 서울공예박물관장)

좌담: 디지털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들

1)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노예리(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연구원)

무형 예술의 아카이빙과 활용 (저작권 문제의 해결, 시소러스 연계 등)

2) 영상자료원

조소연(큐레이터,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영상 아카이브의 보존과 활용

3) 서울기록원

임태원(서울 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공공기록물의 아카이빙과 활용,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공유 및 업데이트 방안

오늘 디지털 아카이빙에 관한 세미나인데 공예박물관장이 왜 기초발표자로 나와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시는 분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개관을 준비하고 있는 박물관장으로 일한 지는 이제 6개월이 되어갑니다만 그 이전에 10년을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의 교수로 재직하며 디지털 아카이빙에 대한 연구와 실제 일하며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의 논의를 발전시켜가자는 것이 주최 측의 의도라고 하여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디지털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도 않던 시대에 미술사를 전공하고 뮤지올로지(museologie, 박물관학)를 공부하고, 전시 기획을 하고, 뮤지엄 기획을 하던 순전히 아날로그적인 사람이 어떻게 이 분야를 처음 접하고, 도대체 생소하기만 한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을 어떤 이유에서 우리 분야의 기본이 되는 구성요소로 생각하게 되었는지, 그 생각을 구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필요한 것이었는지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디지털 아카이빙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거나, 혹은 앞으로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인가 모색 중이신 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생각의 단초라도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주 오래된 경험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불문학 석사 하던 시절입니다. 1980년대 초반이니 정말 오래 전입니다. 1920~30년대의 초현실주의 문학을 전공한 교수님의 조교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초현실주의 작가들의 미술과 문학의 상호영향에 대한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던 파리 3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수님이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안에 작은 연구실이 있는데 거기서 일을 도와줄 수 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문학 교수님이 과학연구소에 연구실을 갖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점에 대해 전혀 의문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특별한 것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연구소에는 두꺼운 컴퓨터 출력물이 쌓여 있었는데, 1928~1935년에 출간된 Monde, Le Surréalisme au Service de la Révolution, Commune 이라는 문예지들이었습니다. 당시 처음으로 인문학 텍스트들을 컴퓨터로 처리하여 연구에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던 시기였습니다. 이 문예지들에서 문학 비평문을 취사선택하여 입력 처리 할 것인지, 전체 문장을 처리할 것인지, 방법은 무엇이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이 처음 논의되던 시기에 샘플 연구로 문학 코퍼스(corpus)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이 연구과제의 출력물은 가져다 놓았지만, 이걸로 무엇을 할 것인지 사실 결정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거죠. 제가 이 문예지 출력물들을 보면서 당시 프랑스 지성인들에게 아시아는 어떤 논의의 중심에서 거론되고 있을까하는 점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그 답을 찾는데 컴퓨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실에서 입력한 후 알파벳순, 빈도순으로 정리한 코퍼스에서 아시아에 해당할 수 있는 어휘들을 추출하고, 이를 의미군으로 정리하여 시사점을 찾고 다시 콘텍스트 분석을 심화하는 방식으로 제 나름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분석에서 도출된 결과를 통해 동시대에 발간된 세 가지 문예지에 투영된 아시아에 대한 관점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이론을 하는 교수님들은 이 연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하셨던 기억도 있습니다만, 이 석사논문은 컴퓨터를 활용하는 새로운 연구방법을 제시했다고 언어학 학술지에 소개되었습니다. 어쩌다 기성학계에는 참신한 중요성을 제시한 결과가 되었나봅니다.

두 번째 얘기는 1990년경입니다. 미술사로 전공을 바꾸고 『20세기 미술의 모험』이라는 미술사책을 번역했습니다. 그 책은 1900년부터 미술계에 있었던 중요한 전시, 사건, 신문기사, 출판 등의 기록 자료들을 연도별로 정리해서 복잡해 보이던 20세기 미술사를 아주 흥미롭게 편집한 책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모든 연구는 자료에 기반한다는 중요성을 깨닫게 해준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함께 일하던 동료들과 우리도 한국미술자료를 정리해보자고 일을 벌였습니다. 190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신문, 잡지 등 모든 매체에서 미술관련 기사, 삽화, 광고 등등 가능한 것들을 모두 찾게 자료집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처럼 옛 신문들이 정리되어 있어 열람이 가능하지 않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각 도서관마다 인력을 파견하거나 사서에게 부탁해서 구할 수 있는 신문들을 일일이 넘겨보며 관련되는 자료들을 복사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자료들은 일반인의 문해력으로는 읽을 수 없는 것들이 태반이었으므로 국문과 연구팀을 만들어서 현대 국어로 번역을 했고, 당시 처음 일반인들도 사용되기 시작했던 한글프로그램에 입력했습니다. 검색이 가능한 미술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수작업으로 만들었던 것이라 하겠습니다. 당시 풍피두센터 도서관에는 오래된 문예지나 신문을 마이크로필름으로 재생해 볼

수 있는 미디어 서비스가 있었고, 주제별로 관련된 신문기사들을 모두 오려 모았다가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번역했던 책도 그렇고, 도서관에서의 이런 서비스도 그렇고, 우리에게 없는 '무엇'에 대한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게 했었기에 저질렀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얘기도 비슷한 시기입니다. 어쩌다, 팔손을 맞는 운보 김기창 작가의 작품과 자료를 정리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팔손기념회교전을 기획하고 전작도록을 출판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지고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만 가끔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작가가 되었지만, 운보는 18세인 1931년에 선전에 처음 출품하여 입선 한 이후 쉬지 않고 왕성한 활동을 했던 한국미술계의 거장이었습니다. 60여 년 간 발표한 모든 작품을 찾아 기록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서 작품을 찾고, 확인하고, 촬영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연도별로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생의 화업을 정리하는 일이 작품에만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자료를 찾아 모으자고 했습니다. 기존에 나와 있던 책이나 신문 잡지에 실렸던 사진, 삶의 일화 등을 모두 다시 정리했고, 작가의 창고를 뒤져서 신문장편 소설의 삽화 수천 장을 넣어둔 라면상자를 찾아내 어떤 신문의 어떤 장편소설의 삽화원고였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어릴 적 스케치북, 세계여행을 다니면서 집으로 보냈던 엽서, 전시 리플릿, 방명록, 사진 등등 관련 있는 것들은 모두 찾아내 작가의 일생 연대기를 정리했고, 각각의 자료가 작품과 어떤 연관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작가의 작업실 사진에서는 확인되지만 망실된 작품들도 밝혀냈고, 작품 제작연대의 오류를 시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신문기사에서 1956년 전람회에 관한 이경성 선생님의 논평 기사 원문을 찾았고, 작가의 사진 더미에서 발견한 당시 전시장 입구를 찍은 사진과 짐 속에서 발견한 전시 리플릿을 바탕으로 팔손회교전에는 '전시안의 전시' 방식으로 1956년의 전시장을 재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전시장에 나왔던 작품을 모았고, 그 전시장 입구를 재현했고, 전시에 대한 신문기사 원문을 확대해서 함께 전시했었는데, 이경성 선생님이 전시장에서 그 신문을 다시 읽으시며 "내가 좀 잘 썼군..." 이라고 웃으시며 회상에 빠지시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스케치북에서 찾은 소녀의 드로잉이 작품의 모델이었다는 것을 밝혀 함께 전시했고, 작가의 삶과 작품 활동의 자료를 총망라한 대형 연보를 전시장 한 면 가득 전시했던 것도 처음 했던 일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던 약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사무실 4면 벽은 모두 운보의 작품 슬라이드, 과거 전시의 모든 인쇄물, 사진, 신문 복사물 등등을 연도별로 분류해 놓은 박스로 쌓여 있었고, 그 안에 있었던 내용들을 가능한 전부 정리해 담아서 5권의 전작도록으로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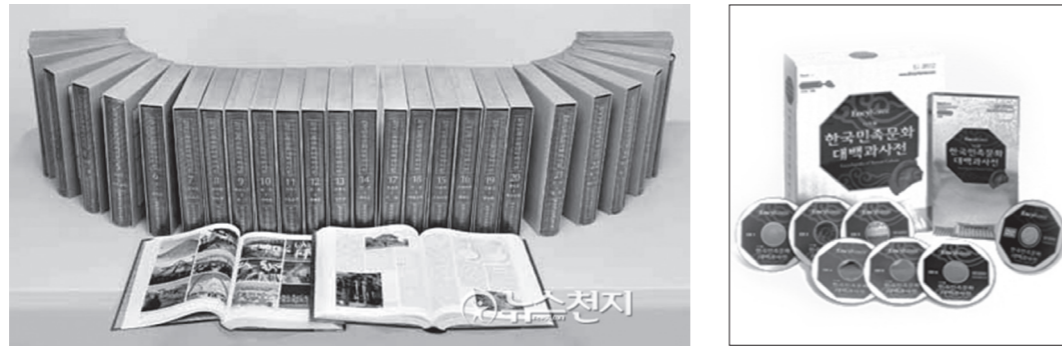
장황하게 들릴지 모르는 이 세 가지 옛 경험들은 모두 '디지털'이라는 마법의 세상이 열리기 전, 아직 사진은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하던 1 세대 PC시대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일들은, 모두 느끼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미술 자료의 디지털제이션(digitization)과 디지털 아카이빙이라고 하는 작업과 결코 다르지 않은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디지털이라고 하는,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정보기술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래함으로써 이렇게 원시적으로 하던 일들을 더욱 편리하고 광범위하게 할 수 있게 된 것만이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다른 점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오늘 날 우리는 왜 이 점을 분명히 다시 보아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이 도래하면서 사람들은 막연히 많은 가능성을 짐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원시적으로 했던 일들을 이제는 아주 당연하게 컴퓨터가 해주게 되었다고 믿게 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걸어서 다니던 길을 처음으로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된 19세기 말의 변화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정보사회라는 개념을 굳이 거창하게 꺼내지 않더라도 그 변화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비행기를 만들어야 했던 것처럼 새로운 길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들을 새로운 형태로 바꾸어 내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죠. 이러한 변환작업을 크게 디지털제이션(digitization)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많은 경우 디지털제이션(digitalization)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걸 옳은 단어가 아니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아는 사례를 보겠습니다. 백과사전입니다. 우리 세대의 사람이면 누구나 동아세계대백과사전,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학습백과사전 등, 어마어마한 사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필요한 지식(정보)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었죠. 무엇이든 찾아보면 거기 다 있다는 것, 이 명제는 사실 지금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과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알고 싶다는 필요와 그것을 담고 있는 매체가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백과사전이 담고 있는 과학이나 역사의 내용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에 인쇄한 백과사전과 온라인에서 존재하는 백과사전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백히 다릅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197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당시까지의 한국학 연구를 집대성한 편찬 작업을 시작하여 1991년 총 27권으로 완간하였고, 2001년에는 제1차 개정증보판 편찬을 완료하고 총 70,000여 항목과 4만여 점의 사진, 동영상 500종, 음향 250종, 지도 및 도면 3,500종 등 멀티미디어 자료를 포함하여, CD-ROM 6장 DVD 1장으로 구성된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을 출간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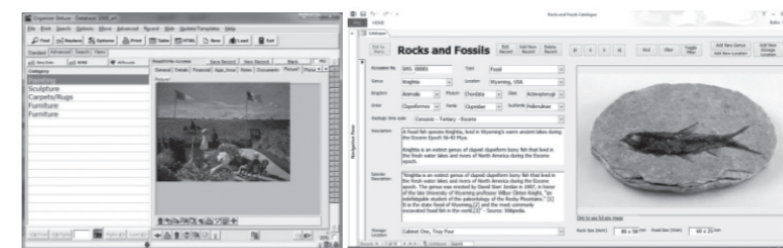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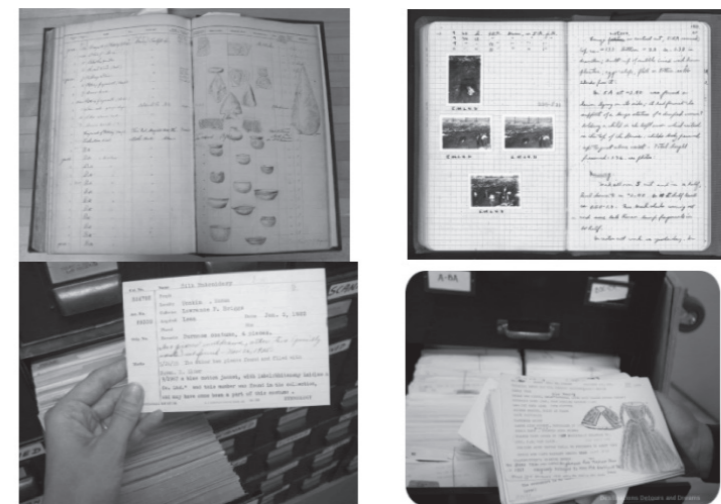
CD로 디지털 백과사전을 발간하며 “5000년 한국민족문화가 디지털 미래와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듯이 기존의 백과사전을 전부 ‘디지털화’ 즉, 디지털제이션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는 아주 빠르게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매체와 사용자의 요구가 훨씬 빨리 변화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 하겠습니다. 1990년대 후반이면 이미 인터넷이 일상화되었던 시기에 디지털의 혁명이 바꾸어 놓은 정보 사회의 변화를 파악하고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겼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트워크 기반으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저장, 소비하게 되는 사회는 이미 시작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후 2007년 11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에 의해 전면적인 개정증보 사업에 착수하였으며, 이를 통해 편찬된 제2차 개정증보판은 2010년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서비스하고 있습니다.¹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백과사전 초판본에서의 이순신에 대한 지식정보와 현재 온라인 사전에서 이순신을 검색하면 제공해주는 정보는 극명하게 다른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의미의 연관성에 따라 정보의 범위를 확장시켜주도록 구성된 온라인 백과사전의 구조가 가장 큰 변화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순신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제어에서부터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실제로 무궁무진하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무한한 만큼 디지털 정보세상은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모든 기술은 이 무한성을 실현시켜 내도록 발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생각이 사람마다 다른 것처럼 디지털 정보세상에서의 개인은 자신만의 고유한 정보의 길을 찾아 자유롭게 편리하게 한없이 돌아다닐 수 있어야만 합니다. 디지털 세상에서 하나의 표제어에 하나의 정보를 제시하는 닫힌 구조의 정보체계는 더 이상 효율성을 찾기 어렵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정보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디지털 아카이빙이고 그 가장 큰 전제는 완벽하게 열린 정보를 최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위의 사진들은 자료의 정보를 기록하는 방식, 즉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 방식의 변화를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형태를 그리면서 기록하던 것이 사진을 사용하였고,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 분류, 공유하기 위해 카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컴퓨터가 등장하면서 모든 정보들을 디지털화하는 관리시스템이 등장했고, 연이어 개인PC의 기록이 아닌 온라인상의 관리체제에서 기록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분류내용, 즉 정보를 관리하는 메타데이터들이 발전하였습니다. 기록의 범위도 다양해져서 3D 스캔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했고, 이 데이터를 제공하여 3D 프린터로 재생하는 등 정보의 활용도 다양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첫 번째 단계는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이나 디지털제이션(digitization)에 앞서 무엇보다 먼저 면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범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기록할 것인가 하는 계획은 큰 범위에서는 전체 일을 설계하는 것이기도 하고, 구체적으로는 기록을 위한 정보를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며 메타데이터를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원로작가 디지털자료집을 구축하기 위한 아카이빙을 위해서는 무엇이 미술자료에 속하는가라는 아주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조사를 해보니 기관이나 학자마다 다른 개념을 설정하고 그 범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자료실 운영규정(2008)은 미술계 관련 인쇄자료 및 전자매체자료/소장 작품과 관련된 작가자료(미술인 자료) 등의 비도서 자료를 대상 자료로 규정하고, 2013년 특수자료 분류 정리 기술 지침에서는 일반도서 자료(50쪽 이상의 도서), 특수자료, 기관 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장품정보관리시스템(CMS)과 일반자료(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자료를 분류한 것이라 여겨집니다. 해외의 경우에도 미술자료 범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1988년 폴 게티 연구소(Jean-Paul Getty Research Institute)에서 정리한 미술사 연구대상으로서의 미술자료와 2014년 디지털 정보세상이 도래한 이후 미술자료에 대한 정의를 비교해 보면 변화를 여실히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술의 표현 방식에 따라서 이 범위는 항상 유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 구축을 위해서는 작가의 작품 세계를 담은 자료집을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에 작품정보를 디지털 아카이빙의 가장 중요한 대상으로 삼고, 여타 자료와 작품의 연관관계를 구축하는 초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소장품관리시스템(Collection Management System)과 아카이브관리시스템(Archive Management System)이 함께 연계된 메타데이터 설계와 시스템 개발이 당연히 함께 진행되어야만 하는, 즉 존재하지 않는 큰 길을 처음 만들어야만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술자료 분류예시(Bakewell & Reese, 1988)

구분	예시
작품	작품의 원본
작품 참고자료	작품 전시 또는 설치환경에 대한 정보 등
작품의 재현물	사진, 슬라이드, 프린트, 드로잉, 도서 수록 이미지, 마이크로필름 등
아카이브	작가 또는 기관의 기록물
1차 문헌자료	작가의 글, 전시비평문, 전시도록 등
2차 문헌자료	1차 자료를 인용한 자료
도서관 및 서지자료	도서관 및 자료관 등의 서지자료
매개자	사서, 아키비스트, 연구보조, 실무자 등
인터뷰자료	작가 및 관련 인물

Bakewell, E., Beeman, W. O., & Reese, C. M. (1988). Object, Image, Inquiry. The art historian at work. United States of America: J. Paul Getty Trust.

구분	원본(Original)	재현물(Reproduction)
1차 자료 (primary sources)	회화, 사진, 조각, 디지털미디어 등 작품의 원본	도서에 수록된 작품 이미지, 작품 이미지가 담긴 슬라이드, 사진 등 원작의 디지털 이미지
2차 자료 (secondary sources)	작가 개인의 문서, 회고서, 매뉴스크립트, 일러스트레이션, 건축물, 유물 등 작가 또는 기관에 대한 기록 등	도서에 수록된 작가 노트, 서신, 스케치 등 원본의 디지털 이미지 또는 자료
2차 자료 (secondary sources)	학술서적, 학술논문, 미술비평, 대중 미술서적, 전시 및 경매 도록, catalogues raisonné 등의 출판물 (단, 수록이미지 중 1차 자료에 대한 이미지는 1차 자료에 포함됨) 등	원본을 디지털화한 자료

Long, M.P. & R.C. Schonfeld 『Supporting the Changing Research Practices of Art Historians』,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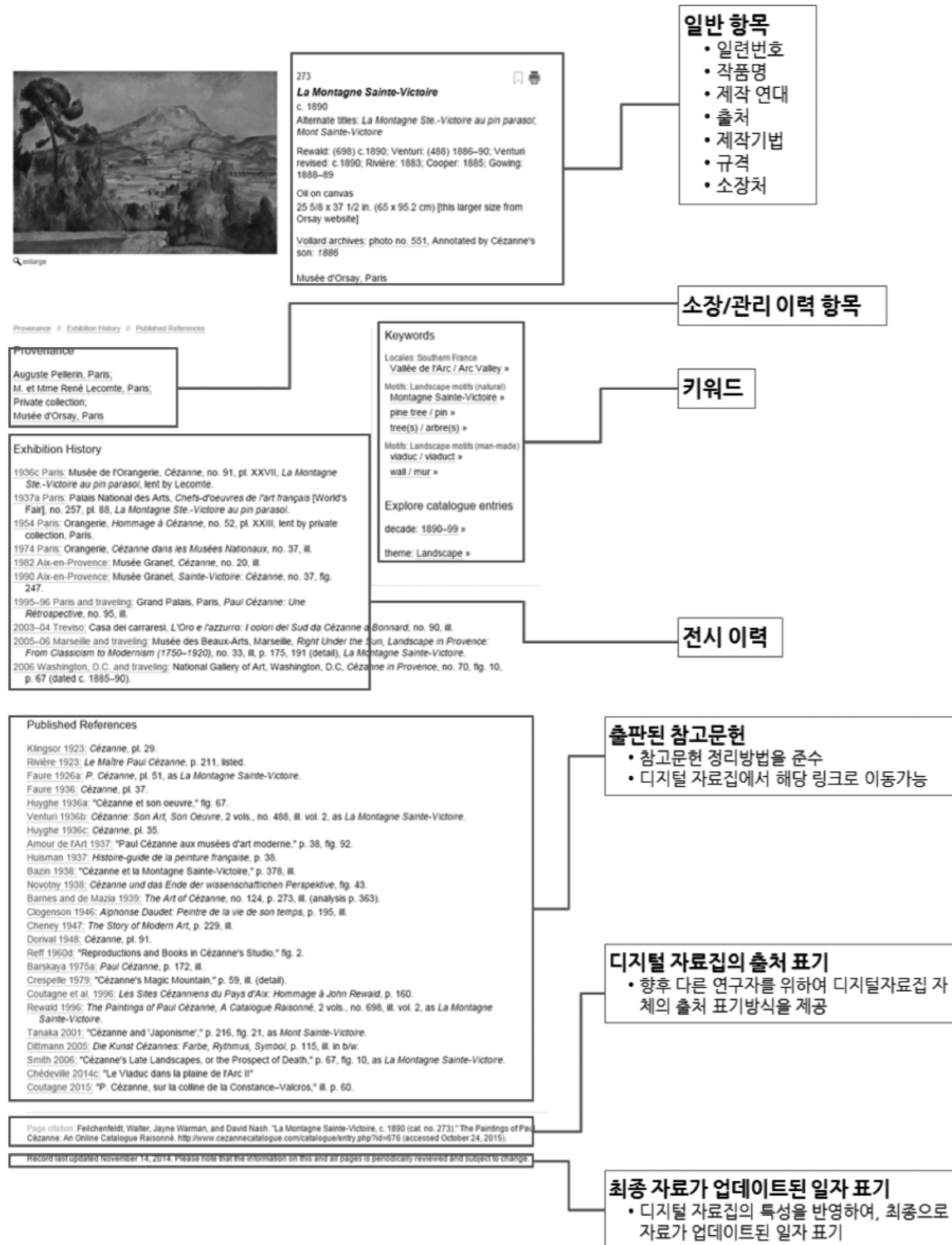
그러나 미술자료의 대상을 정하고, 메타데이터를 정리하고, 정보를 수집 추적하는 디지털 아카이빙 과정은 아주 초기의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 정보들은 어떻게 저장, 보존할 것이며 어떤 처리를 해서 사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와 개발이 항상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디지털 아카이빙의 콘텐츠는 항상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항상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함께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의 단계

입력	기록과 디지털화 Documentation and Digitisation
저장	저장과 보존 Archive and Preservation
처리	해석과 제시 Analysis and Presentation
활용	표현과 보급 Representation and Dissemination(웹, 멀티미디어, 전시, 키오스크 등)

디지털 아카이빙의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활용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을 수집하여 추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정보를 어떻게 해석하여 정리하여 소기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가는 아카이빙 작업의 최대 목표라 할 것입니다. 세잔의 디지털 전자도록²⁾을 한 사례로 보겠습니다.

2. <http://www.cezannecatalogu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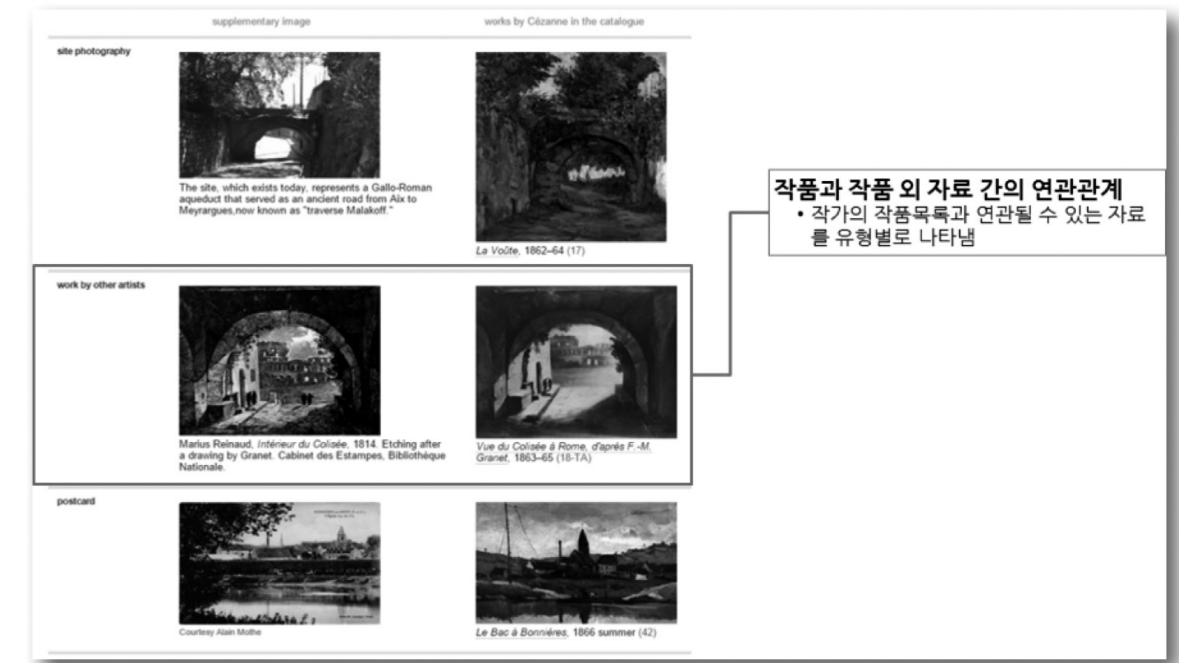


폴 세잔 디지털 자료집의 정보 제공 현황

위의 작품 정보 서비스 화면에서 볼 수 있듯이 작품에 대한 기본정보 외에도 소장이력, 전시이력, 작품 연관 키워드, 문헌자료 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라는 항목에서 세잔에게 영향을 준 다른 작가의 작품이나, 작품과 연관있는 사진, 엽서 등을 관련 작품과 연관지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폴 세잔 디지털 자료집 전시이력 예시



폴 세잔 디지털 자료집의 작품 연관자료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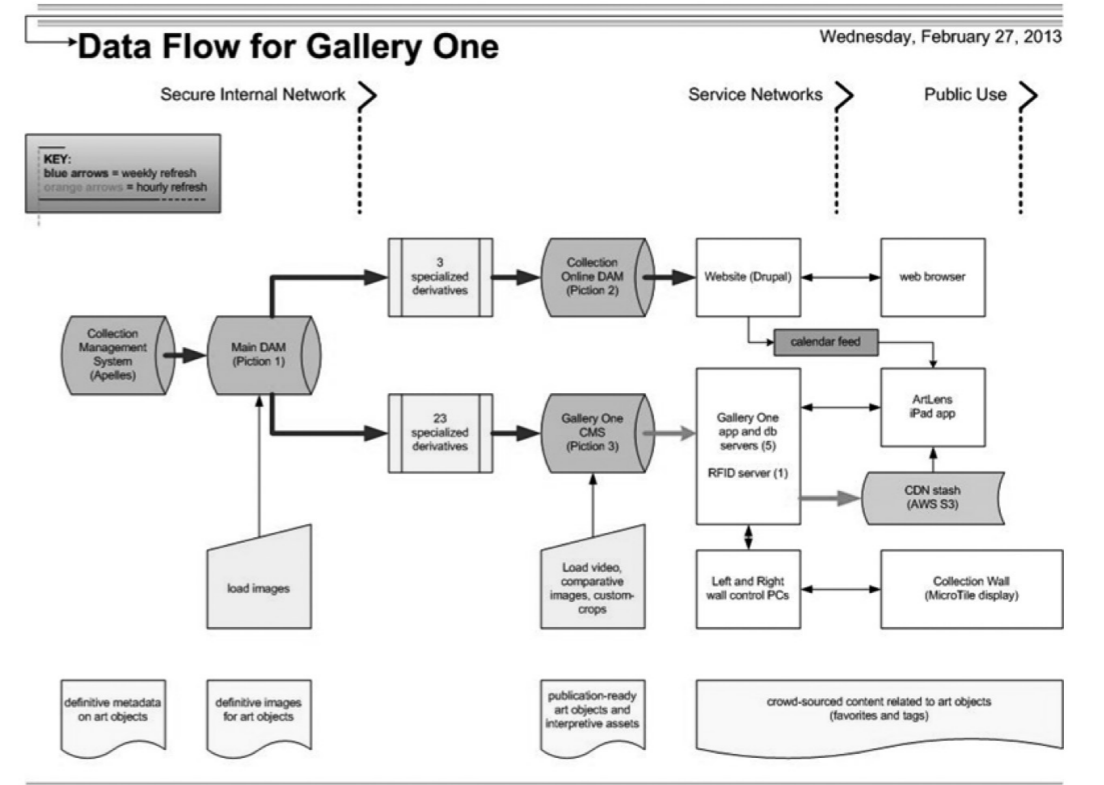
세잔의 디지털 전작도록은 그 서문에서 "디지털 기술의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작가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디지털 자료집의 가장 큰 장점은 언제든지 새로운 자료가 추가될 수 있고, 다양한 연구자에게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이다. 작가에 대한 출판물이 지속적으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자료집의 자료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디지털 자료집에서 다양한 검색과 기능을 구축해놓음으로써 연구자, 학생은 작가에 대해 연구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큐레이터는 전시를 기획하는 데에 있어 가상의 전시기획이 가능하고, 미술관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가장 자세하고 최신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작품 소장가는 소장품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 언제든지 접근할 수 있다. 일반 대중은 작가와 작품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깊게 이해할 수 있다. (중략) 디지털 자료집은 이제까지 그랬던 것처럼 협업의 결과물이다. 처음 자료집을 공개한 다음에도, 전 세계 연구자와 소장가들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작가에 대해 보다 발전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카탈로그와 연구를 포용하고 아직 누락된 것들, 새로운 발견들을 포함할 수 있는 확장성, 각종 정보들의 연계성을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클리브랜드 미술관의 갤러리 원의 경우를 한 번 보겠습니다. 갤러리 원의 디지털 월이나 아트렌즈, 인터랙션 키오스크 등은 우리의 환호를 불러냈고 누구나 이렇게 만들고 싶다는 충동을 금치 못했습니다.



클리브랜드미술관, 갤러리 원, ARTLENS Gallery

그러나 이러한 사용자와의 인터랙션이 있기 전에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일을 묵묵히 했어야만 하는 사진 촬영과 기록에서 출발하는 아카이빙에서부터 활용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설계, 시스템 개발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갤러리 원 데이터 흐름도

잘 된 아카이빙이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하나의 사례로 시카고미술관의 디지털 도록³을 들 수 있습니다. 게티재단의 온라인학술도록연구(Online Scholarly Catalogue Initiative)의 일환으로 연구, 출판된 도록은 작품의 미술사적인 연구내용들은 물론 작품과 연관된 드로잉, 보존처리를 위한 촬영 이미지 자료, 풍경화의 대상지역에 대한 자료, 그림에 등장하는 인물에 관한 연구 등, 방대한 내용이 작품과 인터랙션을 이루어 정보를 제공하는 e-Book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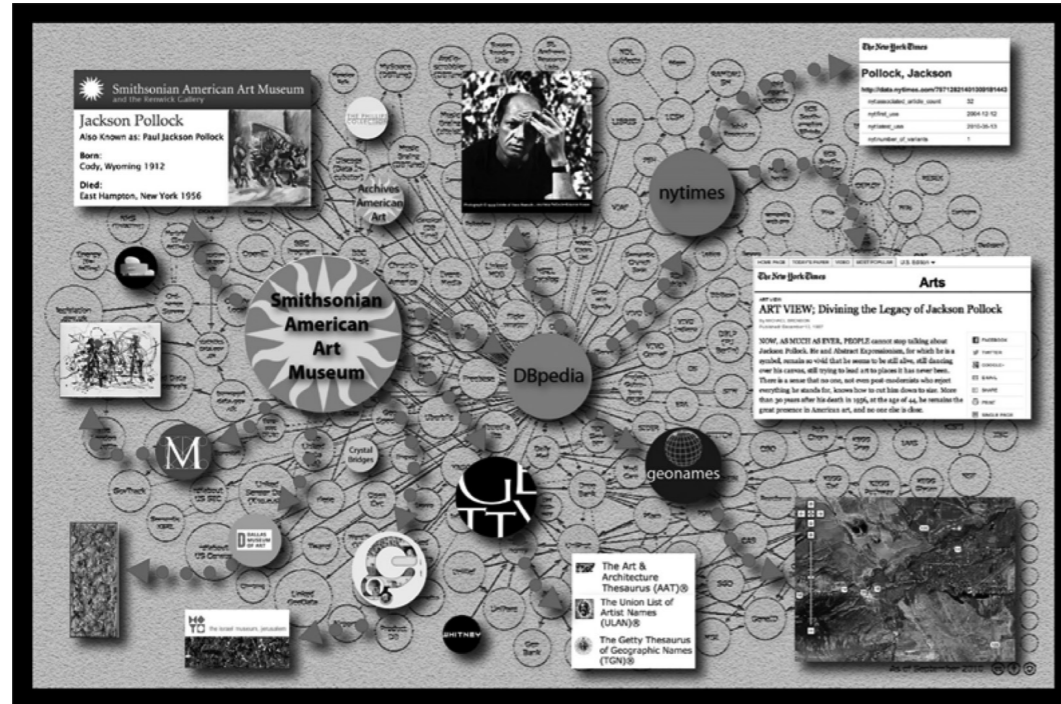
디지털 아카이빙은 출발점에서의 기획, 자료 수집과 정보 생산, 정보의 구조화, 입력, 저장과 보존, 정보의 해석과 가공, 제시와 출판, 사용자의 활용의 단계 전반을 아우르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이 단계별로 순차적으로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지나면 더 이상 직선 방향으로 작동하지 않고 순환적으로 가속 확산될 것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한 방향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곧 정보의 생산자가 되어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순환구조의 정보세계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갤러리 원의 관람객이 키오스크 체험과정에서 만들어낸 많은 이미지들이나, 관람객 각자가 내가 좋아하는 작품으로 만들어놓은 관람 동선의 정보들이 쌓여서 또 다른 중요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현황입니다. 이러한 정보들이 아카이빙되어 또 다른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우리가 모든 정보들이 막힘없이 흘러다닐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 길에 정보가 흐르도록 하는 일 전체를 총괄적으로 일컬어야만 합니다. 저는 디지털 아카이빙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사용하고 있는 수도물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게 된 것과 흡사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에 우물을 파서 물을 길어 사용하던 사회에서 집안 구석구석에, 심지어는 100층 건물에서도 거침없이 수도물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물에 수도꼭지만 달아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이 큰 강과 저수 처리시설과 연결되어 절대 부족하거나 마르지 않고 흐르게 하는 수도시설이 우리가 쓰는 물의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물길이 잘 설치되고 공급이 되어야 100층 에서도 물이 나오고, 분수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간혹 데이터는 없는데 가상현실로 멋진 콘텐츠를 만든다는 얘기도 듣고, 혹은 데이터도

3. <https://www.artic.edu/digital-publications>

없이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얘기를 하는 경우를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언합니다. 물길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데이터를 쌓나가고 흐르게 하는 아카이빙 작업은 결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급한 마음에서 생기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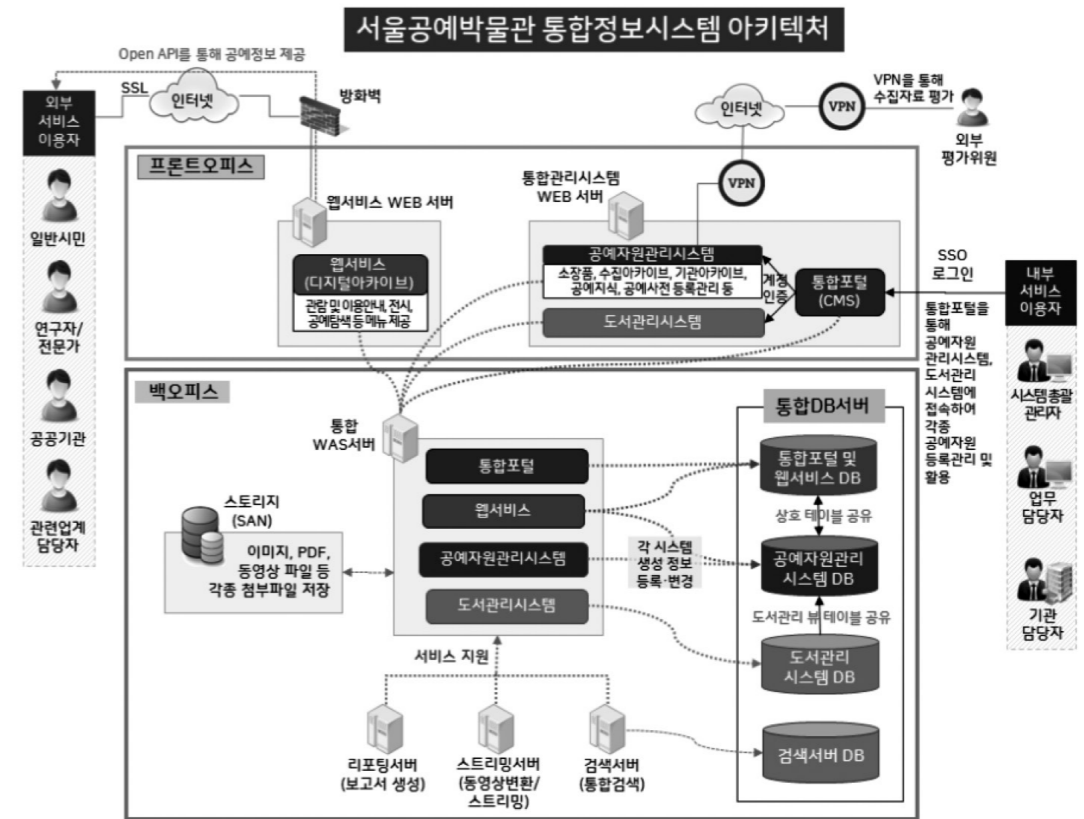
모든 시설물은 개량하려면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기차가 KTX가 되면서 선로도 다시 깔고 차량도 다시 디자인해서 만들어야했습니다. 디지털 아카이빙도 항상 이런 발전과 변화에 당면하게 된 것이라는 점도 잊으면 안되겠습니다.



미술관 정보 네트워크 공유에 의한 지식 정보 파급과 생성의 개념도,
Graphic representation of how Linked Open Data connects related records
(Image/Pedro Szekeley, USC Information Sciences Institute)
출처: <https://news.usc.edu/44660/usc-tech-experts-to-guide-smithsonian-museum-to-next-generation-of-the-internet>

새로운 데이터의 종류가 생길 것이고, 새로운 연구내용이 나올 것이므로 항상 업데이트하고 확장하는 유기체로서의 디지털 아카이빙의 특성에 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큰 차원에서, 기차 기술이 발전하면서 더 빠르고 더 편한 이동을 위해 선로 자체를 다시 만들어야 했듯이, 디지털 아카이빙의 시스템에서 정보를 축적하는 매체가 지금에서 또 다른 어떤 기술로 변해갈지 예측하지 못합니다만, 분명히 변화할 것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옛날 경험에서처럼 손으로 하던 일들의 내용과 목적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방법과 도구만 달라졌다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세기에 정보의 저장과 전달의 매체가 종이에서 디지털 데이터로 변화한 것이 큰 변화였지만, 지금 이후에도 정보를 축적하고 저장하는 방법이 더욱 발전할 것이 자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은 언젠가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른 방식으로 전환, 이전 시킬 수 있다는 당연한 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디지털 아카이빙에서 구축된 데이터들은 곧 다른 데이터 세트들과 융합되어야 할 날이 올 것입니다. 이 변화는 어쩌면 지금도 벌써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독립된 데이터 세트로 분리되어 존재할 수 있는 세상은 이제 이미 종료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열린 정보사회란 정보를 공개한다는 데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창작과 생산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지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정보지식사회에서 지식이란 정보를 전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식이란 각자의 아이디어에 가치를 부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지식정보사회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할 기회를 반드시 제공해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은 이 사회의 기반시설을 만들어가는 초석을 쌓는 길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공예박물관장으로 우리 박물관에서는 어떻게 디지털 아카이빙을 준비하고 있는지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생박물관으로서 디지털 큐레이터를 채용하였고, 박물관 소장품 관리 시스템을 설계하면서 우리는 소장하는 작품의 정보와 그에 관련된 정보의 메타데이터를 전부 새롭게 정리하였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작품 뿐 아니라 작가(장인)와 작품과 관련된 여타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있고 그 정보를 전부 소장 작품과 동일한 위상에서 디지털화 하도록 하였습니다. 소장품 정보, 공예아카이브 정보, 공예지식 정보와 기관 활동에서 생산되는 연관 정보를 총괄적으로 포함하는 공예자원 통합관리시스템(CMRS)을 설계하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 통합시스템을 바탕으로 웹서비스와 갤러리의 미디어 콘텐츠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활용 설계도 하였습니다. 아직 개발 중인 내용이지만, 데이터 세트 간에 장벽을 없애고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목표로 설계하였으니 기대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의 정의와 현황> 발제 모습, 김정화(서울공예박물관장)

국악아카이브(2007~)

국립국악원¹ 국악아카이브(Gugak Archive)는 국립 음악 기관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기관 아카이브로써 국악 자원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안정적으로 보존하여, 보유한 콘텐츠와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2007년부터 전방위적인 기록물 수집 활동을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내·외의 개인과 기관이 보유한 국악 자원을 수집·관리하여 약 40여 개의 컬렉션과 약 41만여 점의 기록물(동영상·음향·이미지·복합·텍스트)을 보유하고 있다. 이중 약 40만 점을 아카이브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였으며, 아날로그 기록 중 60% 정도 디지털변환을 완료하였다.

2009년 「국립국악원 자료관리규정 과 「저작물 관리 규정 이 차례로 제정이 되었고, 국악 분류체계 및 메타데이터의 설계 및 디지털 국악아카이브 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기반을 다졌다.

2012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한 ‘국악아카이브 포털’²은 현재 약 3만여 점의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고 있으며, 음향·영상 콘텐츠 약 4천여 점을 스트리밍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YouTube)’ 채널³과 구글 문화연구소(Google Cultural Institute)⁴와 업무 협약을 통해 온라인 전시를 기획하여 이용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외부 소장기록은 ‘구입, 기증, 이용권 확보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내부 생산기록은 ‘이관(transfer, 移管)을 통해 정기적으로 입수하여 관리한다.’ 외부 소장기록은 ‘명인·명창의 공연 활동 영상과 사진, 실연의 현장에서 채록한 음원, 국의 현장, 축제 기록, 음악학자의 학술 활동뿐 아니라 1900년대 독일군 포로가 된 이주민의 노래, 1960년대 외국의 음악학자가 남긴 한국 음악과 춤의 기록들을 포함한다. ‘내부 생산기록’은 서울 본원과 3개의 지방 원(남원, 부산, 진도)이 기획·제작한 공연, 교육, 연구 활동 중 본원 소속 단원들과 직원들이 실연하고 연구한 것을 직접 녹음·녹화한 ‘생산기록’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활용토록 관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국악아카이브에 수집된 공연예술 기록을 통해 예술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근현대 전통 공연예술을 조망할 수 있다.

국악아카이브는 구축 단계부터 정착기인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학술·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유관 아카이브 현황 조사,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전망과 발전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학술 세미나 및 연구 용역, 컬렉션 분석 연구 등을 진행하였다. 2016년부터 디지털 시대의 공연예술 아카이브의 역할, 2017년 동영상 기록에 대한 다양한 논의, 2018년 해외학자가 기록한 1960년대 전통공연기록, 2019년에는 국악아카이브의 공유, 연계, 활용을 주제로 학술 세미나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의 국악아카이브 운영을 통해 한국전통예술 기록의 수집과 관리, 보존 체계를 갖추었고, 축적된 기록들은 원천 소재로써 활용 범위가 무궁무진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보다 적극적인 활용과 공유에 대한 모색이 과제로 남아있으며, 기록의 맥락과 구조를 확보하여 가치 있는 정보의 제공뿐 아니라 기록의 예술적·역사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1. 국립국악원은 신라의 음성서부터 고려의 대악서, 조선의 장악원, 일제 강점기의 이왕직악부로 이어지는 왕립음악기관의 전통을 계승하는 1,400년 가까운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 해방 이후 국립국악원은 6.25 전쟁이 발발한 이듬해인 1951년 4월 10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개원하였다.

2. <http://archive.gugak.go.kr/portal>

3. <https://www.youtube.com/gugak1951>

4.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national-gugak-center-gugakwon>

무형예술아카이빙과 활용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노예리
2020.1.10.(금)

1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Gugak Arch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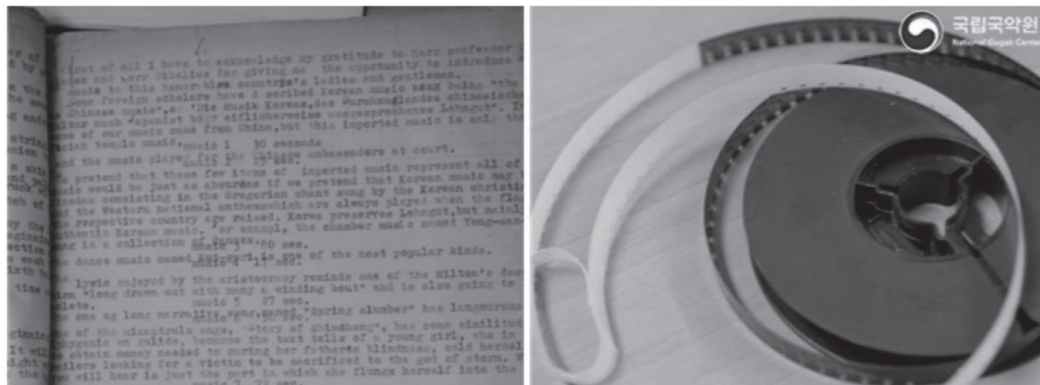




Q1. "국악 아카이브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A1.

국악 아카이브는 우리 국악의 명실상부한 최고의 보물 창고로 세계 유일의 문화 자원인 우리의 전통 음악, 무용, 연희 및 창작 국악에 이르는 국악 자료를 조사·수집·관리·보존하는 곳입니다. 국악원 내부 자료는 물론 민간 자료의 수집 활동을 통해 동영상, 음향, 이미지, 텍스트 자료 등 38만여 점에 달하는 국악 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산재해 있는 국악 자료와 정보도 집대성할 예정입니다.



Q2. "아카이브의 자료는 어떻게 보관되나요?"

A2.

아카이브 보유 기록물은 '디지털국악아카이브시스템'을 통해 등록 → 저장 → DB추출 → 서비스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아날로그 자료의 경우 디지털 콘텐츠로 변환하여 스토리지와 라이브러리 백업장치, 소산 테이프로 3중 백업하여 원본과 복제본을 항온항습실에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Q3. "국악 아카이브에 공개된 가장 오래된 자료는 무엇인가요?"

A3.

국악 아카이브에서 가장 오래된 자료는 168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공연자료는 1931년 6월 29일 비원 회정당에서 촬영한 조선총독부 조사 조선 궁중무용 기능 영화인 '조선무악(朝鮮舞樂)'에 관한 영상입니다. 이왕직아악부원 양성소 출신들이 출연하였으며, 총 재생시간은 6분 12초입니다. 본 자료는 국악 아카이브 누리집에서 감상할 수 있는데, 흑백이지만 사람들의 표정까지 확실히 볼 수 있을 만큼 복원이 잘 되어 있습니다.



Q4. "국악 아카이브의 자료는 누구나 볼 수 있나요?"

A4.

국악 아카이브의 자료 중 저작권이 해결된 자료는 온라인 누리집에서 누구나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국악 아카이브 누리집은 필요한 국악 자료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최근 개편을 통해 새롭게 단장했는데요. 최신자료와 추천자료는 물론 연도, 국악분류, 국악시소러스, 시리즈, 기증자 등 다양한 검색 방법을 통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국악 표제어 4,000여 개에 대한 언어 관계 검색(시소러스) 기술이 적용되어 유사한 의미의 국악 용어가 있는 경우 확장하여 검색할 수 있으며, 검색 결과에서 원하는 자료를 간단한 조작만으로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검색 시, 공공누리 유형을 체크하면 자유이용 저작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이미지 자료는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전시 메뉴에서는 국악에 관한 다양한 주제별 스토리를 만나 볼 수 있는데요. 기록물이 풍부 있는 이야기를 통해 국악에 대해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소장 기록물 현황

외부 수집/내부 이관



02



무비필름
최길성 컬렉션



비디오테이프



SP음반
성창순 컬렉션

01



원통실린더
배틀린 컬렉션



카세트테이프
김귀봉 컬렉션



CD테이프
해의만 컬렉션

03



공연팸플릿
송방승 컬렉션



육필노트
성창순 컬렉션



사진앨범
이해식 컬렉션



최초의 해외공연(1964)
요미우리신문사 초청, 일본공연



최초의 판소리 완창(1968)
제5회 방송의 날 기념, 박동진 흥보가 완창



최초의 전곡공연(1975)
제49회 국악연주회



최초의 음반제작(1972)
한국음악선집 제1집



최다 출연자 공연(2013)
세종조 회례연(경복궁 근정전)



최장수 기획공연(1988-현)
토요상설공연

2007-2020



국악아카이브(2007-2020)



외부 소장 기록물 수집 시작(2007)
국악메타데이터 및 분류체계 개발(2008)
표준계약서 및 저작권 규정 제정(2009)
국악아카이브 구축전략 수립(2010)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구축(2011)
내부 생산기록물 이관 시작(2011)



국악아카이브 누리집 개설(2012)
기록자원 보존환경 안정화(2013)
컬렉션 활용 음반제작(2014)
온라인 전시 및 유튜브 채널 운영 본격화(2015)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고도화 정보화전략 수립(2016)
국악아카이브 10주년, 첫 전시 개최(2017)



공연예술아카이브 네트워크 케이판 업무협약(2018)
아카이브관리시스템 고도화(2018)
국악시소러스 및 온라인 기능 탑재(2019)
국악인명DB 구축(2020)
국악라키비움 구축(2020.8. 예정)
특수자료실 개관(2020.8. 예정)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 국악박물관 재개관 기념도록(2020, 국립국악원)
- 국립국악원 블로그 <https://gugak1951.blog.me>
- 국악아카이브 <https://archive.gugak.go.kr/portal/main>

한국영상자료원

한국영상자료원은 1974년 영화진흥공사의 하부조직인 '한국필름보관소'란 명칭으로 처음 설립되었다. 1970년 북한 국가영화문헌고가 국제영상아카이브연맹(FIAF, 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에 가입한 뒤 1974년 정회원이 되자, 당시 대결 관계에 있던 한국정부가 자극을 받아 한국 내 필름 아카이브의 설립과 FIAF 가입을 서둘렀다. 1984년 영화진흥공사와의 독립성이 문제가 되어 FIAF 정회원 가입이 부결되자, 조직상 독립을 추진하였고, 1987년 최초로 독립 기관장이 부임하였다.

1991년 한국필름보관소의 명칭이 한국영상자료원으로 바뀌었고, 1996년에 필름 등 영상자료 의무 제출제도가 영화진흥법 제14조에 규정되었다. 의무제출은 국내에서 제작된 영화가 등급심의를 받은 뒤 60일 내에 영상물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의무제출 조항이 도입되면서, 비록 법규상의 설립 근거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한국영화를 수집 보존하는 국가적 공식기구로 인정받았고, 2002년 영화진흥법 개정안에 한국영상자료원의 설립 근거가 명시되면서 법률상 규정된 특수법인이 되었다.

영화법 제34조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의 임무는 "영화 및 비디오물과 그 관계 문헌·음향 자료 등 영상자료의 수집·보존·전시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예술적·역사적·교육적인 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것이다. 설립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부족한 인력과 공간으로 인해 수집과 보존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영상자료원은 1999년 IMF구제금융 사태 대책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한 국가정보화기반 사업의 도움으로 보유자료의 디지털화를 시작하였고, 2000년 이후부터 2006년에 이르기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정보화촉진기금 지원금으로 필름, 시나리오, 스틸사진, 평론 등 다량의 영상자료를 디지털화 및 DB화 하였다. 2006년에는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를 신설하여 영화 제작정보, 영화인, 각종 보유자료에 대한 전문 검색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2007년에는 영상 아카이브로는 최초로 영화 VOD 서비스를 실시했다.

2008년 상암동 독립청사 시대에 접어들면서, 보존과 활용은 본격적으로 균형을 이루게 된다. 시네마테크KOFA 3개관(B1), 한국영화박물관(1F), 영상도서관(2F)과 온라인/모바일 사이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큐레이팅된 영상자료를 대국민 서비스하고 있고, 도서/자료집 발간, DVD/블루레이 출시 등 연구 활용사업을 점차 확대하였다.

한편 필름 기반의 영화산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디지털시네마 기반으로 급변하였고, 2014년에 이르자 의무제출 대상 영화 전체가 디지털시네마로 제작되기에 이른다. 한국영상자료원은 2005년 디지털 영상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델링 연구 작업을 추진하고, 이를 토대로 디지털 시네마 검수 시스템, 필름 디지털화시스템, 대용량 디지털아카이빙 시스템 등 디지털 아카이빙 기반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구축해나갔다. 부족한 보존공간을 확충하고 최신 보존복원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파주 보존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2016년에 완성하였고, 4K 해상도 기반의 필름 디지털 복원시스템을 비롯하여 디지털 아카이빙 시스템을 대폭 확충하였다.

그동안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디지털 아카이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앞으로 가야할 길은 더 멀고 험난해 보인다. 보존해야 할 데이터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오늘날 디지털 자산의 장기적인 보존 및 접근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어떠한 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아카데미 기술위원회, 『The Digital Dilemma』, 2007)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한국영상자료원 및 디지털아카이빙

현황 소개

한국영상자료원 조소연

2020년 1월 10일



한국영상자료원 연혁



한국영화 수집, 보존/복원, 상영, 전시 등을 통해 한국영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4년에 설립된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본원 : 서울 상암동 / 파주보존센터 : 파주)

- 1974 한국필름보관소 설립
- 1985 FIAF(International Federation of Film Archives) 정회원 가입
- 1990 예술의전당으로 이전
- 1991 재단법인 '한국영상자료원' 명칭 변경
- 1996 영화필름 의무납본제도 시행
- 2002 한국영상자료원 설립(재단법인 해산) 영화진흥법 제24조의3
- 2007 상암동 본원 청사 건립 및 이전
- 2008 시네마테크KOFA/한국영화박물관 개관
- 2016 파주보존센터 개관

시네마테크KOFA



영상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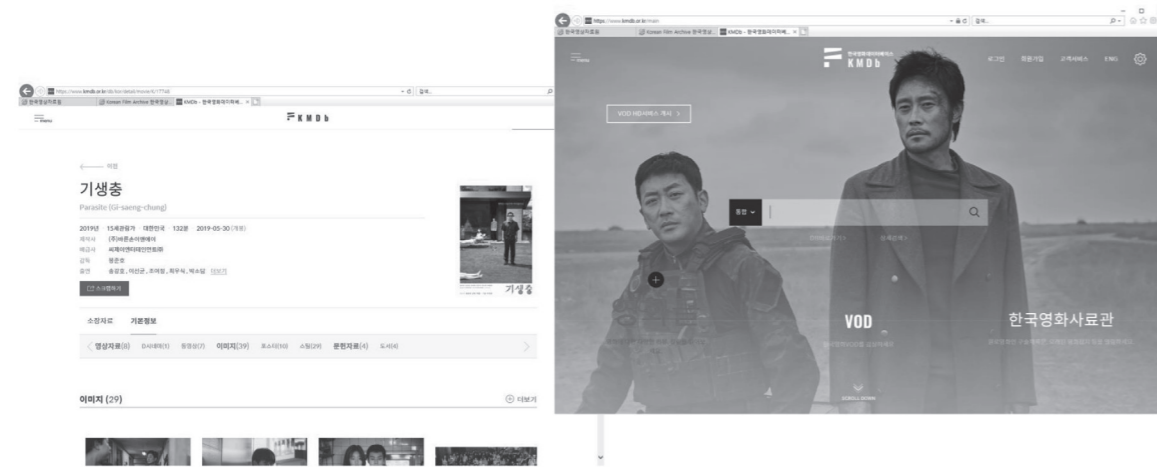
한국영화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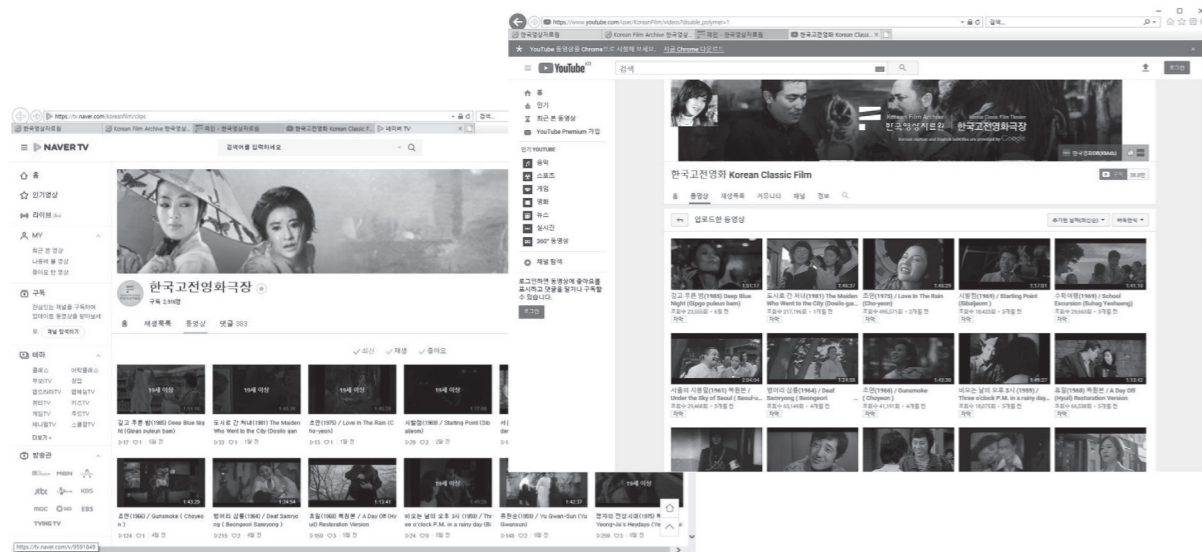
영상아카이브관리시스템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VOD서비스



디지털아카이빙이란?

미도서관협회의 디지털 보존 정의 워킹그룹이 2007년 6월에 개최된 연례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보존(Digital Preservation)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발표

- 짧은 정의
디지털 보존은 디지털 콘텐츠가 영구히 접근,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략,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 중간 정의
디지털 보존은 미디어의 폐기 및 기술 변화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로 제작되었거나 디지털로 변환된 콘텐츠가 영구히 접근, 이용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정책, 전략,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 보존의 목표는 콘텐츠의 본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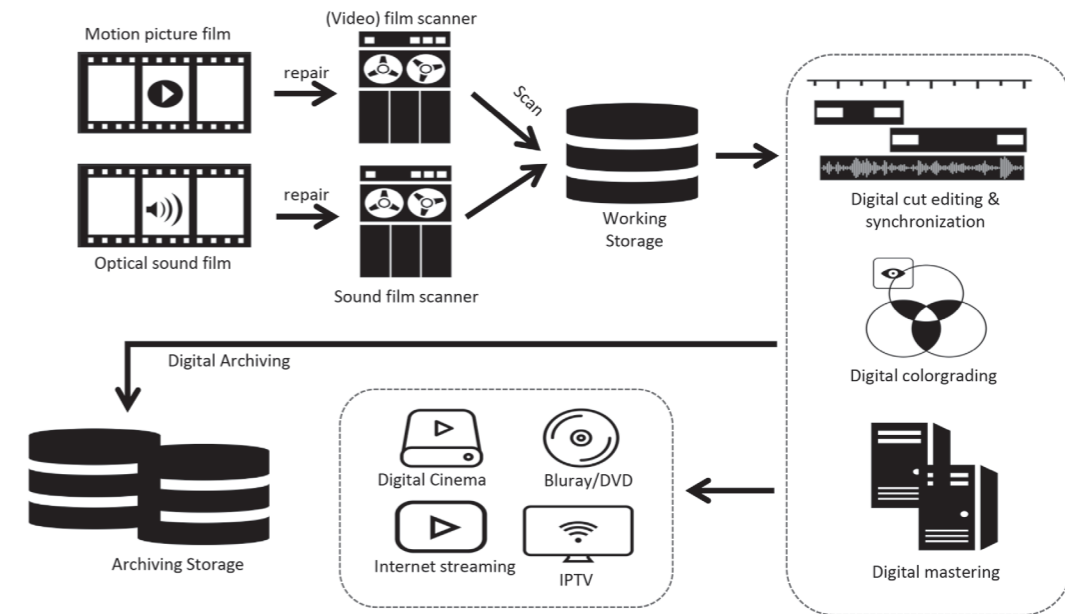
- 긴 정의
디지털 보존은 미디어의 폐기 및 기술 변화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영구적으로 콘텐츠 본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전략, 행동을 모두 포함한다. 디지털 보존은 디지털로 제작된 콘텐츠 뿐만 아니라 디지털로 변환된 콘텐츠 모두에 적용된다. 디지털 보존 정책이란 디지털 콘텐츠가 미래에 사용되도록 보존하기 위한 기관의 지침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보존하기 위한 파일 포맷이나 적용될 보존의 수준을 명세하고, 디지털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과 선례를 따를 것을 보증하는 것이다. 디지털 보존 전략과 행동이란 콘텐츠 제작, 보존, 유지를 다루는 것이다.

콘텐츠 제작	콘텐츠 보존	콘텐츠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적인 스펙을 명확히 하는 것 - 신뢰할 만한 마스터 파일로 제작하는 것 - 미래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관리상, 구조상의 메타데이터를 충분히 기술하는 것 - 처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컨트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전략, 처리절차에 대한 명문화 - 영구적인 식별자의 사용 - 모든 객체의 탄생과 변화에 대한 기록 - 검증 메커니즘 - 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주의 - 정기적인 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컴퓨팅 및 네트워킹 인프라 - 여러 장소에 파일을 저장하고 동기화 - 리프레싱, 마이그레이션, 에뮬레이션을 위한 프로그램 - 재난방지 및 복구계획에 대한 창안 및 테스트 - 정책 및 처리절차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업데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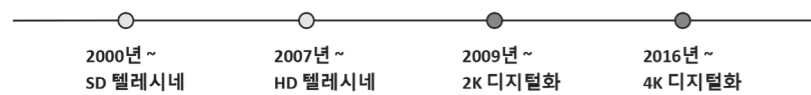
필름 v. 디지털시네마 의무제출 변동 추이

년도	제출편수	필름		디지털	
		수	비율	수	비율
2005	90	81	90.0%	9	10.0%
2006	125	110	88.0%	15	12.0%
2007	125	97	77.6%	28	22.4%
2008	127	86	67.7%	41	32.3%
2009	129	68	52.7%	61	47.3%
2010	160	68	42.5%	92	57.5%
2011	195	55	28.2%	140	71.8%
2012	190	22	11.6%	168	88.4%
2013	225	5	2.2%	220	97.8%
2014	295	0	0%	295	100%

필름 디지털화 및 디지털 복원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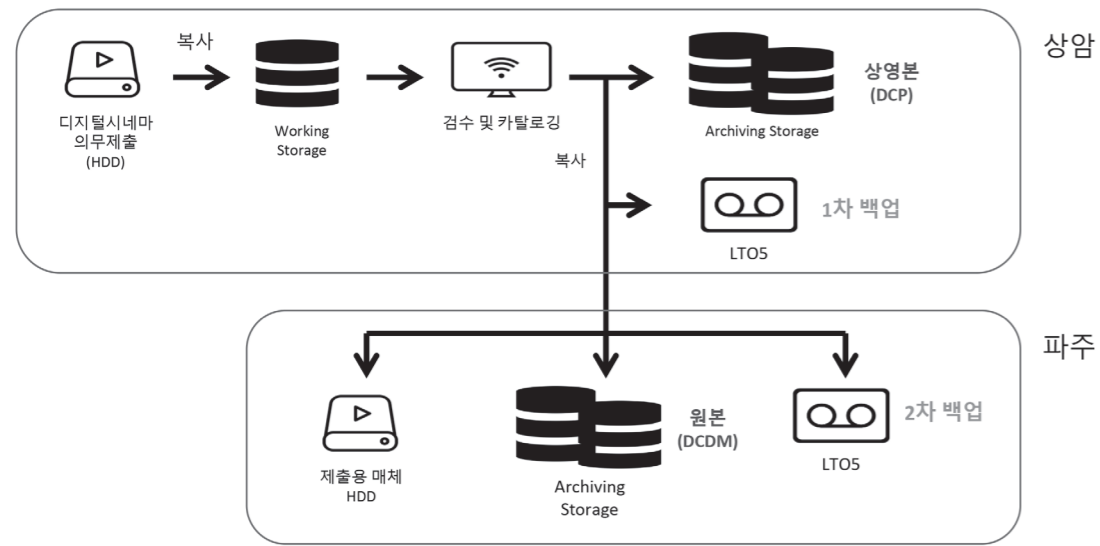
필름 디지털화



Format	Resolution	Bit Rate	Per Frame	Per Hour
SD (525/60i)	729 x 480	4:2:2 8 bit	0.69MB	76GB
HD (1080/60i)	1920 x 1080	4:2:2 10bit	5.2MB	560GB
2K/24P (DCI Cine)	2048 x 1080	4:4:4 12bit	10MB	860GB
4K/24P (DCI Cine)	4096 x 2160	4:4:4 12bit	39.8MB	3,442GB



디지털시네마 백업 정책 및 공정



디지털 아카이브 과제

- 보존량의 기하급수적인 증가 : '망라적 수집' 불가 — '선택적 수집' 불가피
- 디지털 자료의 빠른 멸실 : 신속한 수집 필요
- 디지털정보의 가변성 : 원본에 대한 진정성, 무결성, 신뢰성 보장 취약
- 디지털 장기 보존기술의 부재
'오늘날 디지털 자산의 장기 보존 및 접근을 합리적으로 보장할 어떠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미디어도 존재하지 않는다'
- 컴퓨터, 전산, 영상처리, 정보기술, 디지털 전문인력 필요
- 아카이브 비용 급증

서울기록원

서울기록원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서울특별시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12년부터 설립 준비를 시작한 이래 지방기록관리 체계 설계와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수년간 연구와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끝에 2019년 5월 은평구에서 문을 열었다.

서울기록원은 전문적인 공공기록관리 체계의 구축과 시민들의 일상에 자리매김할 수 있는 대표 기록문화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록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수집·이관 받은 기록을 안전하고 과학적으로 보존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관리한다. 다양한 유형의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 기록매체별 서고(13개)를 갖추고 있으며, 서가의 길이는 29km로 약 130만권에 달하는 기록을 수용할 수 있다. 기록을 전문적으로 보존·복원하기 위해서 기록매체별 보존·복원실을 갖추고 있으며, 130여종에 달하는 전문장비를 구비하여 운영하고 있다. 전자적 환경에서 기록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효과적으로 서비스할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더불어 기록을 매개로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아카이브'가 되기 위해 기록열람실과 전시실, 시민 프로그램을 위한 미팅룸들을 운영하고 있다. 기록열람과 전시 외에도 견학, 세미나, 컨설팅, 각종 시민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서울기록원은 '로컬 아카이브'로서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서울시민의 기억을 모으고 기록으로 남기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기록과 시민의 기억이 모여 서울을 보다 입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아카이브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의 존재
기록의 가치와 의미의 공유



국립중앙기록원
국립중앙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기록의 존재
기록의 가치와 의미의 공유



국립중앙기록원
국립중앙기록원

공공기록 아카이빙과 활용

: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공유 및 업데이트 방안



Digital Archive

2020.1.10.(금)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임태원

공공기록 아카이빙과 활용

: 연구기관 협력을 통한 연구 결과물 공유 및 업데이트 방안

1. 아카이빙
2. 기록의 활용
3. 협력과 공유



1. 아카이빙

ARCHIVING..

- 'ARCHIVE' + '~ING'
- '보존기록' + '~하다'
-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공공)기록물이란?

“기록물”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 → 협의의 공공행정
- 공공의 공공에 의한, 공공을 위한 기록 → 광의의 공공 또는 거버넌스



2. 기록의 활용

재료) 기록과 기록 컬렉션, 그리고 기록 콘텐츠

준비) 기록의 정리·기술과 콘텐츠 제작

방법) 열람과 전시,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2. 기록의 활용

재료) 기록과 기록 컬렉션, 그리고 기록 콘텐츠

- '기록'은 업무·활동의 산물로 생산·보유하게 된 1차 자료
- '기록 컬렉션'은 기록을 일정한 기준(주제/사안/기능/인물/공간)에 따라 재편성한 기록의 묶음
- '기록 콘텐츠'는 1차 자료인 기록을 통해 만든 2차 자료



기록



기록 컬렉션



기록 콘텐츠



2. 기록의 활용

준비) 기록의 정리·기술과 콘텐츠 개발

- 기록의 검색과 탐색이 가능하도록 기록의 목록을 정리하고 상세정보를 입력
- 기록을 쉽게 찾고, 조사할 수 있도록 가이드 제작
- 정리된 기록을 토대로 주제/사안/주요인물 별로 콘텐츠 개발



정리·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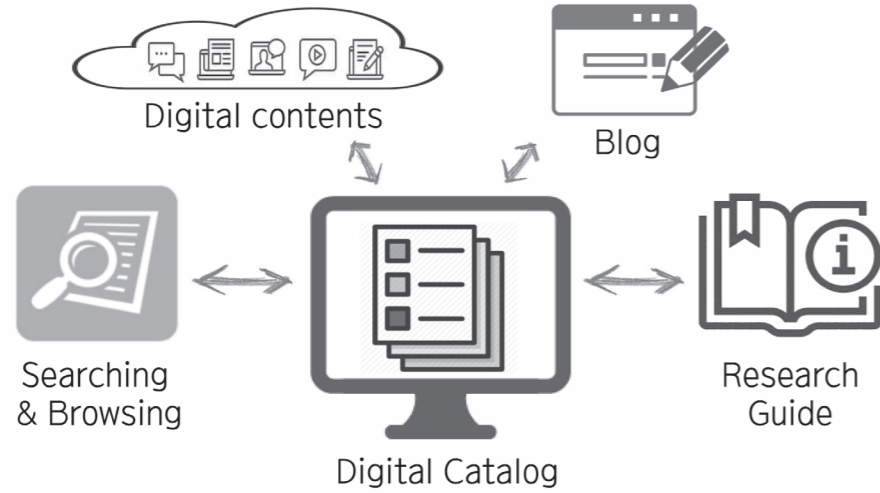
콘텐츠 개발



2. 기록의 활용

방법) 열람과 전시, 그리고 디지털 아카이브

- 정리·기술 결과를 토대로 온·오프라인 기록 열람 제공
- 소장기록과 수집한 기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기록 전시 제공
-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3. 협력과 공유

조사와 연구 지원

- 소장기록에 대한 연구기관/문화기관의 조사와 연구를 지원

협력 프로그램 운영

- 상호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운영
- 기관 간 협력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

디지털 아카이브 서비스

- 디지털 아카이브 플랫폼의 제공
- 보유한 기록정보의 연계 및 공유

Q&A

감사합니다!

다. 국극전 네가 시표는 물론 민간 시표의 수집 활동의 중요성, 음향, 이미지, 텍스트 사료 등
 으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산재해 있는 국악 자료와 정보도 집대성할 예정입니다.



<디지털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들> 발제 모습, 노예리(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연구원)



<디지털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들> 발제 모습, 조소연(큐레이터,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디지털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들> 발제 모습, 임태원(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오늘 객석에는 현장에서 실무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발표를 듣기만 해도 발제해 주신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는지 감히 상상이 안 가는 그런 사례들이었습니다. 사실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서비스한다는 것은 기존의 아날로그 아카이브 구축이나 서비스와는 조금 다른 결을 지니고 있고 아까 기초 발제를 통해서 김정화 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구축과 서비스를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전체 계획,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용자들의 피드백과 기술 자체가 변화하는, 그러니까 기록 자체가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세 가지가 동시에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이 세 기관에서 모두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관에서 모두 대상물의 수집, 디지털 환경에서의 보존 그리고 활용을 위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제작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진행할 좌담은 제가 준비한 질의를 각 선생님들 세 분께 모두 드리는 방식으로 진행하겠고요. 지금 편하신 순서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각각 다루고 있는 콘텐츠 장르별 특성에 대해서 여쭙보고 싶는데 국악이라든지, 영화, 공공 기록 이라는 다른 장르를 다루고 계신데, 디지털 아카이빙에서 콘텐츠 특성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고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하실 때 참고하신 벤치마킹 사례가 혹시 있는지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노예리 선생님부터 앉아계신 순서대로 갈까요?

노예리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연구원

국악은 공연예술의 분야이다 보니 보고 듣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하나의 공연 작품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양한 유형의 기록 유형들이 발생하고요. 음향, 영상, 사진, 팸플릿 그리고 현수막 디자인까지 사실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 기록의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원래 국악은 풍류방이나 이런 자연 음향에서 하던 공연 장르잖아요. 무대화되면서 장비들을 Full HD급으로 갖추게 되면서 생산부터 전자의 속성을 갖는 기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를 디지털 아카이빙에 적용한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폴더와 아이템, 파일 클립 체계로 자료를 관리하고 기록 관리 체계를 갖고 있는데요. 그것은 작품이나 프로그램은 묶음 단위로 있기 때문에 공연 행사 단위로 묶어주고 그 하위에 기록물들을, 그 행사와 관련된 기록들을 묶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의 저장 매체에 하나 이상의 곡들이, 장르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노래가 나오기도 하고 하다보니 이용자 입장에서는 영상 테이프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 하나의 정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클립 단위로 서비스 콘텐츠를 따로 만들고 있어요. 서비스의 가장 하위단이 클립이고, 그 클립 단에 들어가는 메타데이터는 구간 정보와 인물 정보 그리고 분류 체계 그리고 저작권의 여부, 하나의 매체에 대한 저작권뿐 아니라 곡에 따른 실연자, 저작권자들 다 확인합니다. 그와 더불어 공공 저작물로 개방하기 때문에 그 유형까지 클립 단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영상자료원도 굉장히 많이 괴롭혀 드렸고요. 저희보다 앞서 아카이빙 사업을 했던 모든 기관들을 사실 다 가봤던 것 같아요. 웬만한 기관들을 다 가보려 했고, 그 사례들을 분석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이 참고하려고 했고요. 현재 저희의 상황에서는 라키비움, 뮤직 라이브러리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박물관 아카이브 도서관이 결합된 형태의 사례를 찾고는 있는데 사실 국내에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스미소니언 컬렉션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소연 큐레이터, 한국 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저희 영상자료원이 영상 아카이빙이기는 하지만 영상물만 수집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나리오 같은 문헌자료, 포스터 스틸 이미지 자료, 기자재 영화소품 박물관 다양한 매체 자료들을 아카이빙 하고 있고 다른 아카이브 기관하고 워크플로우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디지털 자료를 장기보존 하는데 필요한 그 시스템을 위한 개념적 구조틀인 OAI, 아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 참조 모델을 거의 따르고 있고요. 다만 저희 영상자료원의 아카이빙의 조금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영상물을 다루기 때문에 워낙 고해상도 대용량 콘텐츠들이 들어오고 이것들을 인제스트(디지털자료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일련의 과정) 하고, 검증하고, 아카이브 스토리로 보내고, 백업하고 또 불러들여서

다시 또 다른 어떤 포맷으로 인코딩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워낙 많은 시간들이 소요가 되거든요. 따라서 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충분한 처리 속도 그리고 네트워크 대역 폭 이것들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었어요. 아까 제가 4K 데이터 하나, 작품 하나가 거의 6TB에 육박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저희가 초고속 스토리지, 대용량 스토리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1편 백업하는데 5시간 걸려요. 그래서 저희는 아카이빙 설계할 때 이런 처리 속도, 네트워크를 중요시 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전에 영화에 대한 카탈로깅을 하면서 장면 검색을 위해 씬 단위로 카탈로깅을 한 적이 있는데 기술적으로도 가능하고 할 수는 있는데 너무 많은 품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시범적으로 하다가 실제로 모든 콘텐츠에 적용은 못하고 중단되기는 했지만 이러한 것들이 계속 속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못하지만 AI 기술이 발전되면 그 기술을 이용해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언젠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임태원(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앞선 두 기관은 국악이라는 주제가 있고 영상이라는 매체유형이 있는데 저희 공공 아카이브는 일반문서를 다루고 보존합니다. 다들 전자문서시스템, 전자결재시스템 쓰시잖아요. 저희는 주로 이런 문서들을 관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상자료원이나 국립국악원이 가지고 있는 매력적인 아이템 컬렉션이나 킬러 콘텐츠 같은 것들을 문서에서 찾기는 참 어렵습니다. 공공 아카이브가 가진 핵심 콘텐츠는 카탈로그입니다. 기록에 잘 정리된 목록과 상세 기술이 공공 아카이브의 가장 핵심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기록은 영상이라든지 특정 주제, 아이템들에 비해서 주목 받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잘 정리된 목록이나 검색 가이드가 공공 아카이브의 핵심 콘텐츠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공공 아카이브의 역할과 그런 공공 기록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공공 아카이브는 보통 공공 행정의 투명성을 담보하고 체계성을 기록으로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합니다. 서울 기록원은 공공 아카이브로서 서울시정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시정 행위들이 시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런 거버넌스를 증거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정의 면면을 시민분들이 잘 파악하실 수 있도록 기록을 정리하고 기술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까 사이트를 보여드렸듯이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진행하면서 기록의 상세 정리 기술사업, 카탈로그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시주택계획에 관련된 기록을 가지고 카탈로깅 작업을 했어요. 시리즈를 구성하고, 상세 기술을 하고, 조직이나 주요 인물, 주요 주제나 그런 맥락 정보들하고 연결해 놓은 것들을 다음달 즈음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했던 벤치마킹 사례는 주로 해외에 유명한 공공 아카이브들을 많이 참고했어요. 저희 카탈로그 같은 경우는 영국의 TNA를 많이 참고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국립문서기록관리청 NARA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서울기록원 기록 찾기 메인 페이지는 TNA를 많이 참고했으며, 기록 목록 등은 NARA를 많이 참조했습니다.

박상애

원래 시간이 6시에 끝나는 것인데 진행해 주시면서 조금 늦어져서 6시 20분에 끝내도 된다고 제가 메모를 전달 받아서 조금 한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고 객석에서 질문 받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는데 이것을 다 떠나서 제가 궁금한 것 하나만 더 여쭙보고 질문을 객석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사실 다루는 콘텐츠 유형 자체가 국악은 사운드, 영상은 동영상 정보와 동영상 그다음에 공공기록물은 텍스트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면, 과연 이 매체유형에 따른 메타 표준을 어떤 방식으로 도입하셨는지가 조금 실무에서도 궁금하실 것 같고 저도 조금 궁금해서 그것 한 번 여쭙볼게요.

노예리

저희 국악 아카이브의 메타 데이터 표준은 보존과 관리, 활용 측면에서 국내 표준을 참고하였는데요. 첫째로는 구조와 맥락 그리고 내용, 기록관리 4개의 범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의 범주 아래에 21개의 상위 요소가 있고요. 그리고 그 하위에 또 77개의 하위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타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어요. 포털 사이트에는 제한된 것들이 보이지만 관리자 화면에서는 많은 메타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준비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제가 조금 준비를 못한 것이 아쉽고요. 기술적 표준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문화예술 장르는 이것이 2008년도 기준이라서 조금 예전 기준이기는 합니다.

문화부에서 그때 만들었던 문화예술 메타데이터 표준을 참고하였고, 관리표준으로는 ISO23081번을 저희가 기록관리 메타로 참고했고 또 더불어서 국내의 표준인 국가기록원의 메타 데이터 표준을 참고하였었습니다. 그리고 보존 표준은 데이터 디렉서너리를 참고 하였고, 활용 표준으로는 ISAD(G) (General International archival Description) 당연히 기록물 기술 메타이기 때문에 참고하였고 더불어서 디지털 매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더블린 코어의 메타 데이터도 함께 고려해서 저희가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소연

영상분야는 주로 방송시장을 중심으로 표준화 논의들이 많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MPEG-7, MPEG-21, SMPTE 그다음에 TV-Anytime 등등 많은 표준화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필름과 관련해서는 필름 아카이브 국제기구인 FIAF에서 메타 데이터 관련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1991년에 'FIAF 필름 아카이브 카탈로깅 규칙'이 나왔었고, 최근에 2016년에 'FIAF 영상물 카탈로깅 매뉴얼'을 개정해서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시스템 만든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5년도에 전면 개편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참조했었던 메타 데이터는 자료들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 기록학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서지 레코드 개념 모형인 FRBR, 도서관의 FRBR 모델을 많이 참조해서 각 영화작품, 영화의 각종 소품들, 각종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호 연결, 연계성을 강조, 중요하게 고민을 많이 했고 그것을 토대로 개발했었습니다. FIAF에서 2016년도 개정된 FIAF 영상물 카탈로깅 매뉴얼 역시 FRBR 개념을 토대로 마련이 되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임태원

서울기록원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설계하면서 관리 메타가 있고 또 기록의 기술항목 이렇게 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보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렸던 OAIS 참조 모형을 기반으로 설계가 되었고요. 그리고 각각의 분류나 기록관리, 전거관리, 메타 데이터 관리 등 여러 가지 서비스들은 유럽의 DLM 포럼에서 만든 모렉(MoReq2010)이라는 기록 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기능요건 표준을 참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모렉(MoReq2010)에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 메타와 추가 메타 데이터들을 많이 참조해서 관리 메타를 잡았어요. 그리고 기록에 기술 항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앞에 말씀해 주셨던 것들을 다 참고했습니다. 주로 참고했었던 것은 국제 기록기술표준인 ISAD(G)를 기반으로 하였고, 국가기록원의 연구기록물 기술표준을 참조했습니다.

ISAD(G)와 조금 달리 전거기반의 카탈로그 서비스를 구축하려다보니까 서울기록원만의 독특한 결과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록기술 표준 하나를 가지고 기록만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이라든지, 주요 인물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아니면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정보 유형으로 설정해 놓고 기술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 기술 외에도 다섯 가지 유형의 기술 가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조직이나 주요 인물, 업무 기능, 소장처 등은 별도로 기술해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NARA나 TNA에서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박상애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 앉아 계시면서 궁금하신 점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고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객석 질문1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경 전문가로 공원 아카이브를 하려고 합니다. 제일 궁금한 것은 저희는 이제 막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디서 어떻게 수집하지? 공원에 대한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 곳에 전혀 모아져 있지 않아서 이제서야 그런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디자인 아카이브 포럼에서 디자인 박물관 단지를 세종시에 만들어서 디자인 아카이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기록원에서도 주택 관련한 기록을 모아 정리했다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디지털로 아카이브가 만들어지면, 자료들이 겹쳐질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 '연결'이 두 번째

키워드인데 저희는 이제 후발주자이고 미리 되어 있고 또 한창 하시고 있고 동시에 시작하고 있는 이런 다양한 아카이브들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기록원에만 들어가면 여기도 연결할 수 있고,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누가 무엇을 하는지는 어느 한 곳에서는 적어도 파악하고 있어야 똑같은 일을 다른 데에서 안 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조금 됩니다. '공공의 기록'하면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저희 공원도 사실은 다 공공이고 또 문화 콘텐츠이기도 하지만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고 그래서 저희도 지금 계속 서울기록원과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나 고민 중인데요. 서울기록원에서는 어떤 지금 이야기,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전방위적인 아카이브의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 혹은 계획하고 계신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임태원

서울시에 부서가 굉장히 많아서 각 부서들마다 요새 아카이브 붐이 불었어요. 역사도심 재생과에서도 옛길영상기록화사업이라든지 예전에 저희가 한 번 조사를 했었는데 수십 개 프로젝트들이 몇 년 동안 진행되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카이브로 끌고 들어올까를 고민하고 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나면 그런 부서들에서 기록화 사업을 한다거나 아카이빙 작업을 하면 이것을 사실은 아카이브라는 것은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것이 한 번 사업을 하고 끝나는 경우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카이브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되지 못하고 멈춰있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지금 서울 사진 아카이브라는 것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전 공보실에서 가지고 있었던 사진들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저희가 계속 사진 업데이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죽은 아카이브로 남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앞으로, 옆에 과 일이라서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기는 하는데 아마 이제 그런 각 부서들에서 유의미하게 기록화 작업해 놓았던 그런 성과물들을 잘 계속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게 협업을 18년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접촉했었던 여러 부서들이 있었고, 그중에 역사도심재생과의 옛길영상기록화 그것들도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금 서울기록원에서는 수집·담당하시는 부서에서 서울시 안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기록을 이관 받는 것도 있지만 이관으로 받아올 수 없는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수집 차원에서 서울시 내부를 또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협업 모델도 있어요. 그래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4년 동안 서울대 정진성 연구팀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일본군 위안부 그런 자료들을 모아왔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그것을 기록 콘텐츠로 같이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런 협력 또는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나 협력 수요가 있으신 경우 저희를 찾아주시면 언제든지 같이 논의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상애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객석 질문 2

저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권경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카이빙에 대한 중요성과 어려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원로작가 선생님들 아카이빙 구축과 관련해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시각예술 분야가 수만 명의 신진작가와 중견작가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지만, 데이터들이 물론 나름대로의 구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객관화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박서보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의 연구를 하는 팀에서 작성한 양식을 공식적으로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요. 물론 계속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신진작가나 중견작가들도 이런 포맷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 내지는 아키비스트를 꿈꾸는 다른 사람의 조력을 받든 아니면 민간 영역에서 조력을 받든 그런 데이터 구축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짧은 시간에 많은 국고를 들여서 소수의 인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술인들의 데이터를 장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로작가 선생님들 아카이빙 구축하는데 있어서 계약을 체결했는지, 계약서 양식을 공유해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심지언 예술경영지원센터 시각사업본부장

1부에서 말씀드렸던 기록지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작도록을 위한 연구지원도 진행했기에 작가재단이나 미술관에서도 많이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침을 공유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컨설팅도 많이 요청하셔서 이전에 연구한 저희 연구팀을 소개해서 연구의 과정들을 공유 받게 해드리는 작업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는 시스템으로 옮겨갔지만 메타 데이터를 입력하는 엑셀 파일과, 업데이트 되는 기록지침들을 계속 공유해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함께 사용해야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공통된 양식으로 정리가 되고 서로 호환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식은 요청하시면 공유 가능합니다.

원로 작가 선생님들과 저희는 계약이라기보다는 동의의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선생님께 연구팀을 통해서 선생님 화업을 정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작업, 연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선생님 작품의 이미지와 자료를 저희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과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공공기관들이 DB를 통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DB에까지 같이 쓸 수 있도록 동의를 구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필요한 범위 안에서 양식을 공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상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이 동시에 손을 드셨는데 여기 받고 저기까지만 받고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객석 질문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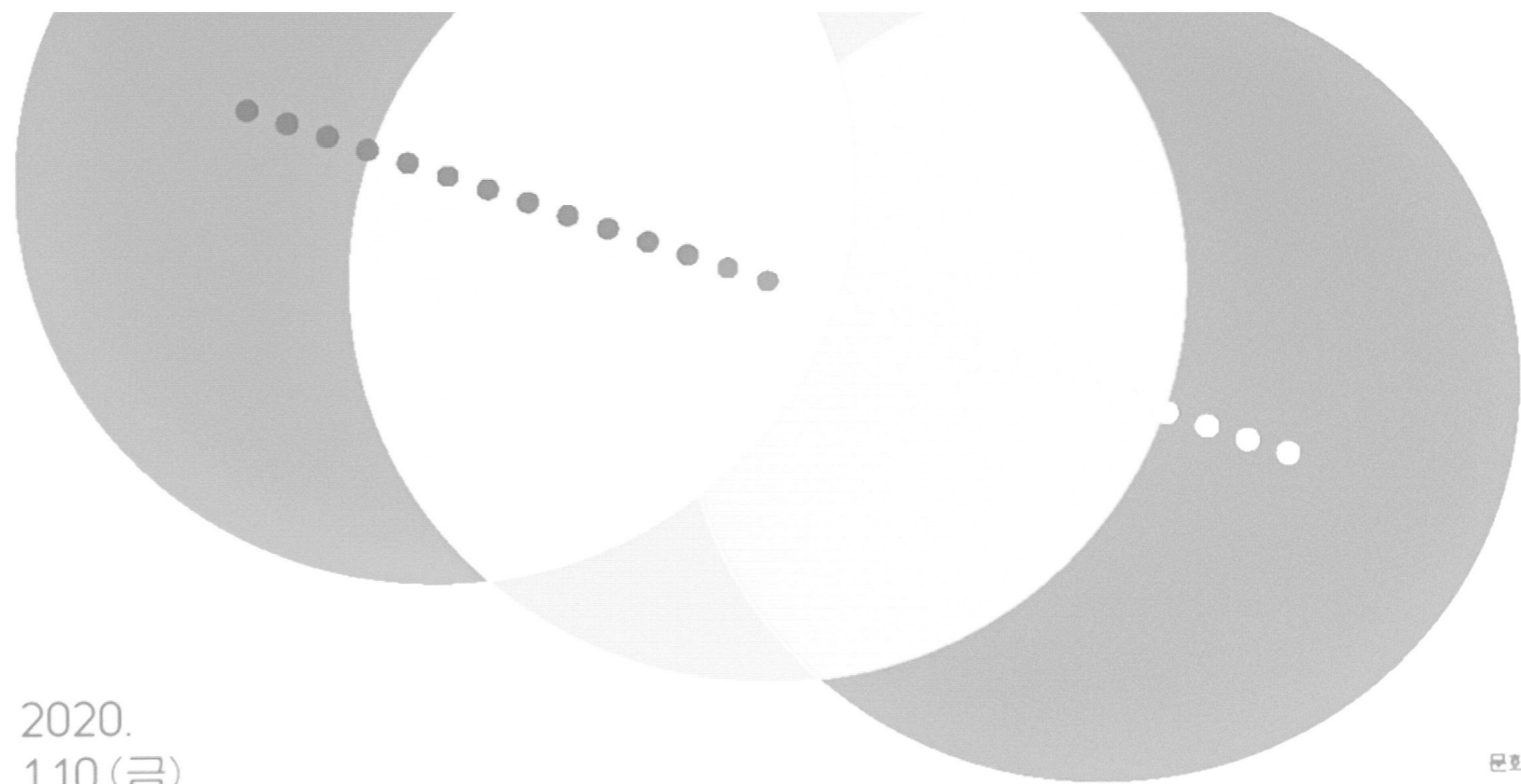
저는 시각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방우림이라고 합니다. 앞에 계신 분보다 김정화 관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디지털이징화 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분류라는 것은 어떤 체계로 각 항목들, 작품들을 분류할 것인가에 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미국 도서관에서 사회 과학 분야와 예술 분야, 공과대 서적들이 분류 체계가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는 자료를 분석해서 검색해 들어갈 때 편의성의 주안점을 둔다는 것인데, 최근에 검색도 디지털이징화 되면서 검색방식이 구글과 연결되는 쪽으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도서관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원로 데이터작가들의 분류 작업들을 보면 개념밖에 못 들었거든요. 분류가 어떤 식의 체계를 가지고 분류를 해야지 소비자 입장에서 검색이 가능 한 구조로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신가요?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

미술 분야 메타 데이터를 어떻게 설정했느냐, 라는 질문으로 돌려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노력이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아날로그 시절에서의 분류 방법을 차용하여 시작했지만 그것이 이 디지털 정보로써 어떻게 가장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사실은 이것이 한 번에 걸쳐서 그냥 이렇게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국립현대미술관에서도 제공했었던 분류 방식이 있고 또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관리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류방식도 있고 분야마다의 시소러스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이 한 가지의 메타 데이터 규격으로 표준화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으나, 이번에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원로작가 디지털 자료집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표본화된 범용적인 분류체계를 선택해서 시작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아까 발표를 해주신 여러 연구진에서 어려운 점으로 제기했던 것처럼 매체가 달라지거나, 표현 양식이 달라지면 그 메타 데이터와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생기고 그래서 그때마다 그것을 조금 더 확장하고 다른 연구를 함으로써 더 확장시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원래 자료의 분류와 메타데이터 설계가 원래 한 가지 고정된 틀로 굳어져서 불변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연구를 하면서 가장 유효한 구조를 선택해야하는 것인데 미술에 사용되는 다양한 매체에 따라 확장시켜나갔던 것입니다. 아마 그 메타 데이터에 대한 기준이나 변화 양상 등이 궁금하시면, 실제 오늘 그런 자세한 이야기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충분히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개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 사례를 발표해 주시는 것을 들으면서 사실은 우리 시각예술 분야에 아카이빙이 얼마나 역사가 허약했나,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뼈저리게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저희가 아카이빙이 잘 안 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겼던 국악 분야에서의 아카이빙 노력에 비교했을 때 사실 우리 미술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단순히 모아서 쌓아 놓는데만 너무 급급했던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의미 있는 정보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 깊게 여러 가지의 연구를 했어야만 했고, 또 플랫폼이나 시스템 등을 수정하며 개선하고, 나아가 필요하면 다 혁신적으로 다 파괴할 줄 알았어야 하는데 그 점들이 우리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많이 모자랐었구나, 하는 점에 대해서 조금 뼈저리게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임방울이라는 국악인이 있어요. 그분이 공연을 60년대에도 했고, 예를 들어서 90년대에도 했어요. 그런데 그분에 대한 극영화가 만들어 졌겠죠. 아니면 어떤 영화의 한 장면으로 등장했겠죠. 그런데 그분이 서울에 살았어요.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훈장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살던 곳은 광주인데 고향은 따로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는 한꺼번에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음악, 공연, 영화, 일생 등, 각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깊은 데이터들이 쌓여가지만 사실 우리 소비자들은 임방울이다, 하면 이 전체를 함께 봐서 음악도 듣고, 영화도 볼 것입니다. 더 나아가면 이 사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어져서 서울에서 살던 집도 가보고 싶고, 살던 그 고향도 가보고 싶어지게 되겠지요. 지금 세상의 정보와 정보의 연계와 확장, 활용은 바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디지털 아카이빙 기록과 연결’이라고 하는 주제의 세미나를 통해 원로작가들의 미술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아카이빙의 현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해야 할 바를 논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미술계 뿐 아니라 다른 분야의 사례발표를 들으면서 미술계의 아카이빙이 어떤 면에서는 심화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확장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을 총체적인 생각의 틀은 우리가 아직도 못 찾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조금 많이 들었습니다. 미술 쪽에서도 기록을 연결하여 의미를 확장할 방법론에 대한 고민과 연구와 더불어, 더욱 확장된 가치를 발휘할 활용을 모색한다는 두 가지를 더 늦기 전에 아주 긴급히 추진해야만 하겠다는 자책이 같이 들었습니다.

서울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명례방



이빙, 기록과 연결

2020.
1.10.(금)
오후 1시 30분 ~ 6시



<디지털 아카이빙의 다양한 사례들> 좌담회 진행 모습(좌로부터 임태원(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조소연(큐레이터,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노예리(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연구원), 박상애(모더레이터,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김정화 서울공예박물관장, 원로작가 운영위원

서울대학교에서 불문학을 전공한 후 파리 3대학과 4대학에서 불문학과 조형미술이론 박사과정을 마쳤다. 2000년에 박물관·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 전문 연구소인 뮤지엄 코리아를 창립해 뮤지엄 컨설턴트로 활동하였다. 명지대 문화예술대학원 박물관학과(2003~2007), KAIST 문화기술대학원(2007~2016), 고려대 문화유산융합연구소 연구 교수(2017~2019)를 역임했다. 첨단 정보기술과 함께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의 미술과 뮤지엄, 전시공학,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며 다양한 활동을 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미술기록자료지침, 원로작가 디지털 아카이빙 김창열 연구팀 책임 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018년부터 원로작가 운영위원을 맡고 있다.

노예리 국립국악원 국악 아카이브 연구원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연구원. 한국외국어대 정보기록학과 강사, 국가 지식재산위원회 신지식재산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대학시절까지 해금을 연주하였고, 문화자원기록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7년부터 국악아카이브의 시작과 현재를 함께하며 자료의 이관, 저작권 관리, 공공 저작물 개방, 온라인 전시 기획 등 국악기록의 수집과 활용에 이르는 여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상애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국제정치학 학사 및 석사를 졸업하고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 아카이브전공 문헌정보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구겐하임미술관 프로젝트 아키비스트로 근무하였고, 현재 백남준아트센터 아키비스트로 백남준 관련 원자료 컬렉션 운영 및 관리와 기술사 프로젝트, 아카이브 관련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임태원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주무관으로 <서울기록원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과 운영, 기록의 정리·기술 및 콘텐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 세미콘네트 웹스 기록정보화사업부 과장, 더브릿지소프트 객원 연구원, 한국문화원연합회 연구홍보팀, 서울시 정보공개정책과 기록문화팀 근무 등 다양한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했다.

조소연 큐레이터, 한국영상자료원 연구전시팀 차장

대학원에서 저작권법과 영화이론을 전공하였다.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원(현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에서 DB 저작권 정책 및 메타데이터 연구, 국가DB구축 사업 등을 담당했고, 2003년 한국영상자료원에 입사한 이후, 영상자료 DB구축 사업,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KMDb) 및 VOD 서비스 신설, 영상도서관 디지털열람서비스 신설,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시스템 기반 구축, 파주보존센터 건립, 영화필름 복원 사업 등 디지털 보존과 활용사업 전반을 관장하였다. 현재는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박물관 큐레이터로 활동 중이다.

